



경북 의정활동

제 57호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전화 (053)602-5113 전송 (053)602-5120 <http://council.gb.go.kr>



열린의정구현

도민의 참 뜻을 실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 제8대 하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 축

2008. 7. 8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제8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출범식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북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제8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를 출범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경상북도의 알찬 미래를 열어가야 할 사명과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은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큰 기대와 엄중한 시선을 자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상북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55명의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심사 활동을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위원회 및 의원 발의 안건만 48건이나 되었으며, 도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등 214건의 안건 처리와 도청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96건의 도청 현안사항을 시정, 개선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40여건의 민원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특히, 도청에 대한 질책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화와 타협, 그리고 도청현장을 발로 뚫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도의회는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300만 도민들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 조병인 교육감님과 경북도청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8대 후반기도의회는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감독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얼마전 의원발의로 통과된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정책연구와 입법정책 기능강화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 전체 의원 모두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활정치를 펼쳐, 성원하여 주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구하는 의회로 변화를 거듭하며 효과적인 정책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집행부와 협조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층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경북을 건설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相 千**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제 222 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2회 임시회는 2008년 4월 18일 11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4월 28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4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4월 18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위원 선임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7건을 처리하고 지난 18일부터 개최된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23 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3회 임시회는 2008년 5월 20일 11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5월 29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4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5월 20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를 긴급 소집하여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심사의결한 후,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휴회기간인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순범 의원, 김영기 의원, 이준호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한혜련 의원, 장두옥 의원, 정경구 의원, 송필각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 제4차 본회의를 5월 29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항 규약안,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도대학교명 변경 동의안,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승인·의결하고 지난 20일부터 개최된 제223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24회 정례회

- 경상북도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는 2008년 6월 20일 11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2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20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7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의결하였으며, 이어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를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7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실업계고등학교 공동 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16건을 승인·의결하고 지난 20일부터 개최된 제224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25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5회 임시회는 2008년 7월 4일 11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7월 8일까지 5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7월 4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제8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의장에는 이상천 의원(포항시4, 한나라)이 당선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이상효 의원(경주시1, 한나라)과 이용석 의원(구미시4, 한나라)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한 후 본회의를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은 제8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신청과 조정을 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8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방유봉 의원(울진군2, 한나라),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상태 의원(울릉군1, 한나라), 행정안전복지위원장에는 이시하 의원(문경시1, 한나라), 교육환경위원장에는 백천봉 의원(구미시1, 한나라), 농수산위원장에는 김영만 의원(군위군1, 한나라), 통상문화위원장에는 한혜련 의원(영천시1, 한나라), 건설소방위원장에는 김기홍 의원(영덕군1, 한나라)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받았으며, 이어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4일부터 개최된 제22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의 장

할말과 할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있고 힘있는 경상북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상 천 의장(포항시4, 한나라)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의회 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선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직을 맡으면서 우리 의회와 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쯤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300만 도민의 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웅도경북의 100년 대계를 든든한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미력하나마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00만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이 한 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할말과 할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있고 힘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 질서는 확실히 지켜나가되, 전례답습의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지역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300만 도민의 행복과 웅도경북의 도약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의 장

도민을 보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경상북도의회 운영

이 상 호 부의장
(경주시, 한나라)



저는 이번 제8대 경상북도의회의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제8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함이 살아가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원근 각지에서 직접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에도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됨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 자신,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보답하기 위해 더욱 300만 도민을 보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300만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부의장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을 뜻을 기본으로 삼아, 일하는 의회·신뢰받는 의회 구현

이 용 석 부의장
(구미시, 한나라)



저는 이번 제8대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 임기동안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현안사항인 고유가와 물가안정 및 장애인, 노인, 여성 문제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 정착시켜 도민의 생존권 보호와 권익신장은 물론 지역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뜻을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도민의 의견을 진실되게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대안개발 등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호간 협력을 도모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도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한 단계 성숙된 경상북도의회 운영

방 유 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울진군2, 한나라)



먼저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한 단계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운영뿐만 아니라 도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위원회 발전을 위해 서로 상의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현장중심의 의회 구현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회가 되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3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도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예산의 운용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 기능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앞으로 저는 우리 도의회가 생산적이고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과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경북도정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대 도의회 역할과 책임은 시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므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갈수록

도민과 상호 소통하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 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과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

이 상 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울릉군, 한나라)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 시 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시, 한나라)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화생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300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 천 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
(구미시, 한나라)



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린경북 실현에 모든 역량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민들 곁에서 상호 소통하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푸른 환경조성과 경북교육이 반석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민의 목소리 적극 대변

최근 한·칠레, 한·미 FTA 등으로 국제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는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어 우리 농어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김 영 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균위군1, 한나라)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만 농어촌 현실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견제와 협력 속에 경북의 발전을 모색

국내외 기업체의 투자유치로 지역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힘쓰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잘 조화된 「문화·관광 경북」구현을 위해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산업 육성, 문화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투자환경 조성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수혜 확대, 문화자원의 브랜드화 등 부가

한 혜 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
(영천시1, 한나라)



가치를 창출하여 문화·관광경북 건설에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정책을 강화하고 소속의원들의 역량과 뜻을 모아 주민공청회 개최, 기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집행부와와 견제와 협력 속에 경북의 발전을 모색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투자로 지역별 특성화된 개발 추진

먼저, 21세기는 『환경과 조화로운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개발위주의 건설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사람과 환경이 잘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각종 대단위 계획수립과 도로, 하천, 주택, 아파트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웰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이변 등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함은

김 기 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영덕군1, 한나라)



물론 어린이·청소년 안전문화 정착 등 도민의 안전의식을 적극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투자와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도로 확·포장,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현장중심의 확인을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상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도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5월 21일 도청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및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대구경북공동발전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도의 주요정책을 청취한 후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낙동강·백두대간 신성장축 개발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4월 11일 청도읍 고수리 둔지에서 새마을단체 및 자연보호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회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다시 찾고 싶은 크린 경북 만들기 실천대회에 참석하여 도민 전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형성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 지하식당에서 전체 도의원 및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에 참석하여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소비위축 해소를 위하여 닭고기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4월 30일 봉화군 명호면 이나리 강변에서 가진 낙동강탐사대 발대식 및 낙동강 대탐사에 참석하여 낙동강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의 재발굴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자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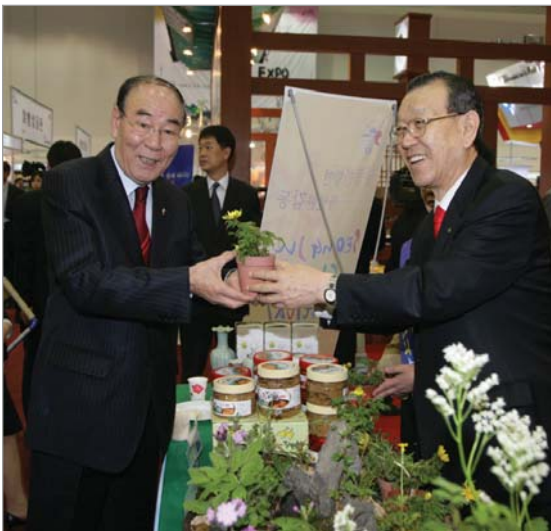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6월 5일 영천시민 운동장에서 선수 등 3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300만 도민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맛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6월 10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가진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에너지분야의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안순덕 부의장은 4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회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무스타파카마리 주한 튀지니 대사, 참가국 대표, 해외관광청 대표 등 주요인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영인사를 하고 전시관을 관람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6월 2일 도청강당에서 도단위 사회단체장 및 산하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도정현안설명회에 참석하여 조루인플루엔자대책 및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방문에 따른 후속 대책 등 도정현안설명을 청취한 후 도청이전 성공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경상북도의회(이상천 의장)는 7월 8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7개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이어 본회의장 로비에서 제8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살아 숨쉬는 생활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는 7월 4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8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였으며, 의장에는 이상천(포항시4, 한나라) 의원, 부의장에는 이상효(경주시1, 한나라) 의원과 이용석(구미시4, 한나라) 의원이 당선되었다.



»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그동안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입법중심의 의회를 지향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의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의정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성공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첨단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망, 외국인 정주여건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을 건학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최근 침체되어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래시장의 특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의 특화, 환경정비, 마케팅 전략 등을 건학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여성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다민족·다문화시대 여성인력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복지재단을 방문하여 복지시설 평가 및 위탁 선정심사, 복지컨설팅사업, 희망통장사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은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지난 5월 13일 도내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피해를 입은 과수 및 채소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실태와 복구 계획 등을 논의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최근 곡물가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에 따라 축산업 존폐의 기로에 선 축산농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한우사육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가식없는 진솔한 어려움과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는 드라마세트장의 관광자원화로 수도권 관광객의 도내 관광지로의 유인책 등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경 대왕세종 세트장을 방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는 경북북부지역 관광 자원개발사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영주판타시온리조트 조성현장을 방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의용소방대 임용권이 도와 군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논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현안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주 화서~화북간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보고와 조기완공 및 주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김응규 위원장(김천)



박순범 부위원장(철곡)



김만용 위원(의성)



김수용 위원(영천)



김영만 위원(군위)



박기진 위원(성주)



박병훈 위원(경주)



박진현 위원(영덕)



손진영 위원(영주)



이상태 위원(울릉)



이종원 위원(상주)



장두욱 위원(포항)



전찬길 위원(울진)



최윤희 위원(비례)



한혜련 위원(영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의회운영의 원활한 진행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 하였으며, 2008년도 제223회 임시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다. 또한 김수용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정 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하였다. 이번에 상정한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3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입법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향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입법 조례안의 발의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입법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상정

한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두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입안 등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 이어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전처리를 위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2008년도 제224회 제1차 정례회는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 한편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전처리를 위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하였으며, 2008년도 제224회 제1차 정례회는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이어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회사무처의 작년 한해 살림살이가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되었는지, 또한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심사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활동을 펼쳤다.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이외는 편성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의 법적인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조금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예산대비 2.2% 증액된 117억 1천만으로 심사 의결하였다.

또한 다음 회기인 제225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 회기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 구성 등 전반기 임기를 사실상 끝내는 시점이므로 원구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8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으로는 제1차 본회의는 7월 4일 개최하여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지막날인 7월 8일에는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일정을 확정하여 만장일치로 협의 의결하였다.



혁신도시 예정대로 시행촉구 성명서 채택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제정



이현준 위원장(예천)



박진현 부위원장(영덕)



김수용 위원(영천)



나규택 위원(고령)



손덕임 위원(비례)



안순덕 위원(의성)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태 위원(울릉)



정경구 위원(안동)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정부의 혁신도시건설 재검토 논란에 대응하고자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사업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한 성명서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혁신도시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당초 정책의 취지가 훼손됨이 없이 현재 진행중인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국민 앞에 재천명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강력히 대응하였다.

● 또한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사무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업무분야별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탁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별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과 우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 했다.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첨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국내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현황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송도 및 청라지구 개발현장과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어 강원도 횡성재래시장, 속초 중앙시장, 서울 중곡동시장, 주문진시장 등을 방문하여 경영현대화 등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사례와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장 마케팅 체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리 지역이 지식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 운영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였으며, 아울러 새정부의 재래시장 강화와 더불어 도내 전통시장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재래시장 중 활성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타 시도의 성공사례에 대한 수집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이어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혁신법무팀의 존속기한이 오는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기능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난 5월 6일 우리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규약으로 제정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5월 22일 혁신도시인 경북드림밸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개발 규모와 사업진도 등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에게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 추진현장인 상주시 자전거박물관 건립예정지를 찾아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또한 인근에 있는 경천대를 찾아 경북북부지역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한편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기획조정본부 등 5개 소관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불용액 3억 9천만원은 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예산의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기획조정본부)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운영 철저를 당부(경제과학진흥본부) ▶인터넷명예기자 간담회 참석자 행사살비보상금이 예산액 대비 70%인 것은 추진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기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공보관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에서 서민들의 에너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경제과학진흥본부) 하였으며

아울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회체 부담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추궁(기획조정본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편성된 13억원이 당초 시군을 통하여 집행할 예정이던 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새경북기획단) ▶도정 전광판 설비를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동영상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공보관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6천 9백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시설물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공무원교육원)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 소관 신재생에너지육성및지원사업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정보화마을 구축 등 3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고, 새경북기획단 소관 영어체험학습 운영 지원 13억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할 개방직 및 계약직 전문인력 7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는 경상북도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Administration, Health & Welfare Committee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제정 및 타 시도 복지재단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이우경 위원장(경산)



손진영 부위원장(영주)



권영만 위원(봉화)



김숙향 위원(비례)



김응규 위원(김천)



박순범 위원(칠곡)



윤영식 위원(예천)



윤창욱 위원(구미)



이시하 위원(문경)

보장과 도민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경상북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과 노인 등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돼 의료혜택을 받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조례안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지역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복지재단을 현지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복지시설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심사,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사업,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통장”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은 부산복지재단을 계기로 새로운 복지시책 개발과 지역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방문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어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상북도 산하 3개(포항·김천·인동) 지방의료원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한 경영 CEO 공모를 통한 경영 혁신만이 적지를 면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원장 공모 등 임용방법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3개 도립 지방의료원장은 그동안 공모 절차도 없이 도지사가 관행적으로 재임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실경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향후 지방의료원장 임기 만료 후 새로이 의료원 원장을 임명할 시는 공모를 거쳐 임원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로 변경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원장에 대한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운영진단 결과를 철저히 반영토록 규정하였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4월 2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진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저소득층 및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하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대상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진영 의원은 “저소득층과 빈곤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했다”면서 “보험료 지원조례안 통과로 걱정한 의료



특히, 원장의 병원 운영능력이 떨어지거나 각종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해임규정을 명시하여 원장의 방만한 운영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제안한 김숙향 의원은 “도립의료원의 원장 임명과 관련, 공모절차를 통한 우수한 원장의 초빙과 책임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상정한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22회 회기에 부산복지재단에 이어 서울복지재단을 현지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복지시설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심사,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사업,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통장”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지 방문을 통한 습득한 지식은 새로운 복지시책 개발과 지역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다민족·다문화 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여성인력개발 등에 중점을 둔 기본연구과제에 대하여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행정보건의복지위원들은 출산율 감소, 고령화, 혼인을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가족 해체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지역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향후 여성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기로 했다.

● 한편 제224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행정지원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경도대학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경도대학,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회의 소외계층 등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당부 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 상정한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윤창욱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권영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그동안 전반기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뜻과 의견을 모아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의안개발과 산적해 있는 지역의 이슈와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8대 도의회 전반기 조례 등 의안 총 처리건수 158건 중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에서 45건 (29%)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제안 및 의안발의 조례 32건 중 10건(31%)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2006년도에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주최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7년에도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6개 권역별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육관련 단체, 보육교사, 아동부모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7년도 10월에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2008년 1~2월에 남·북권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단체 임원,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여 2008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앞으로도,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일본교과서 독도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등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박순열 위원장(청도)



전찬걸 부위원장(울진)



권인찬 위원(안동)



김만용 위원(영성)



김영기 위원(청송)



백천봉 위원(구미)



송필각 위원(칠곡)



장세현 위원(포항)



채옥주 위원(비례)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는

●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대표, 학원 및 교습소 대표, 교육청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30여명을 초청하여 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 조례안 심사에서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차원의 최적안을 모색하여 조례안 개정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하였으며, 본 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수 및 학급수 감축에 따른 표준정원 32명을 감원하고, 각급 학교의 지방직공무원인 영양사 395명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427명이 감원된 총 정원을 5,139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휴회기간중인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1C 해양경북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양공원화사업, 도서종합 개발사업,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울릉도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자존심이 걸려있는 독도를 외롭게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를 방문·위문하고, 아울러 독도에 주소지를 두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어업활동을 하는 유일한 독도주민 김성도 씨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였다.

● 이어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와 신학습 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에 따라 제223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우리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한편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구성시 관련분야 관계자의 당연직 구성 등 일부 미비점으로 유보되었던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유보되었던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이번에 수정 의결된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습시간을 초·중·고등학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개발을 위해 휴회 기간중인 5월 21일에서 23일까지 타 시·도의 주요 시책 현장인 지구촌의 바다와 해양의 문화를 한데 아우른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와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지인 새만금사업 현장, 한국 최초의 민간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지 방문은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을 비교 견학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 한편 제224회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와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지출 및 이월액, 불용액, 이월사업의 적정성과 향후 추진 계획, 예비비 등에 대한 적정성과 부합여부 등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하였으며,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의 미래인재 육성, 학생들의 전인교육 등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는

제11호 태풍나리 피해복구비 2억 1,800만원 전액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점을 지적하였으며, 포플러 장학기금의 기금잠식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후 2007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였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은 추경규모 2,991억 700만원의 72.5%인 2,169억 2,100만원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새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시행하는 마이스티고 지정·운영사업과 기숙형공립고 시설사업의 사업방향 및 사업성고가 불명확한 시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고 5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 등 집행부 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서 환경 및 해양, 산림분야의 예산이 경상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 3,985억 3,800만원의 0.18%에 불과하므로 수질 등 환경정책과 해양·산림분야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당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어서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가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실습소가 설치된 학교의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부설된 공동실습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농수산위원회

Agriculture & Fisheries Committee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대책 및 우박피해지역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방유봉 위원장(울진)



이중원 부위원장(상주)



김영만 위원(군위)



남중식 위원(청송)



박노옥 위원(봉화)



박병훈 위원(경주)



이용석 위원(구미)



이준호 위원(청도)



조동만 위원(영양)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가운데 도내 영천, 경산, 경주 등의 폐사닭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4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방역대책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농수산위원들은 도내 주요도로 통제초소에서 방역으로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여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은 양계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시장 불황을 겪고 있음을 주지하고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닭고기 소비홍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전국 주요 도로의 방역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자 구마고속도로 고령IC 방역통제소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 방역통제소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AI확산방지에는 조기차단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빈틈없는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한편 4월 28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기피로 폐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유통업계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소비심리를 유발시키고자 이상천 의장을 비롯한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그리고 도의원, 김관용 도지사, 조병인 도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다.

최근 국제 곡물가 및 유가의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 따라 축산업 존폐의 기로에 선 축산농가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4월 23일 현지 확인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고령군 쌍림면 소재 양돈농가 성림축산을 방문하여 최근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등 축산농가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이어 오후에는 상주시 낙동면 소재 한우사육 농가를 방문하여 우사를 둘러본 후, 지역 한우농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마련, 농가의 가식 없는 진솔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축산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어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개방 방침 이후 산지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동요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수입 재협상 요구 촛불 집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영천시 청통면 소재 셋별농장(대표 하상곤)을 방문, 지역 축산농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농수산위원들은 “농가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 한우농가도 소비자를 겨냥한 한우의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세워 자체 경쟁력을 높여나갈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농가의 자조노력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지난 5월 13일 도내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과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을 둘러보고 피해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로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금번 내린 우박은 청송군 450ha 등 8개 시·군 638ha에 달하는 면적에 피해를 입혔으며 주로 어린 과수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를 방문, 위로와 격려하는 자리에서 “재해담당공무원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복구계획 확정 후 동법에 의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하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의회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한편 제224회 정례회에서는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농수산위원들은 최근 국가경제전반에 걸친 사회적·경제적 불안과 어려움을 인식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한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의 목표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예산운용을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의 국제 곡물가 인상 및 유가 급등, 미국산 쇠고기수입 확대 개방 등에 따라 우리 농어업의 존폐가 뿌리째 흔들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요구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4.9%로 도전체 비율 1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은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어업의 위기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최근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값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호밀, 총채보리 종자의 육성 등 우수한 신품종의 조기 개발을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시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축산 생산비 절감사업 등은 순수한 시범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지역의 특정인을 위한 사업성격이 강하여 지역 농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하고 사업 수혜대상자와 사업추진의 형평을 기하고 업무추진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수산위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보한 예산인 만큼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많이 발굴하여 경북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전인차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



이상효 위원장(경주)



최윤희 부위원장(비례)



김중천 위원(영주)



방대선 위원(성주)



백영학 위원(김천)



이재철 위원(상주)



장경식 위원(포항)



정무웅 위원(울릉)



한혜련 위원(영천)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는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회 및 당면현안사항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제222회 및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에 투자통상본부, 관광산업진흥본부, 문화체육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먼저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도민체전 준비상황 점검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4일(2일간) 영천시민운동장, 문경 대왕세종 세트장, 상주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방문에서 오는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4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영천시를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영천시민운동장 등 주요시설의 개·보수, 시가지 및 도로망 확충 등 체전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300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대회가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날인 24일에는 2010년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개최지인 상주시를 방문하여 승마장 건립부지 확보 등 추진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4월 16일 준공식을 가진 문경의 대왕세종 세트장을 방문하여 관리운영상 애로와 불편사항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당부하면서 도와시의 관계관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문경 대왕세종 세트장 방문에서는 수도권 관광객의 도내 관광지로의 유인책 등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고 관광상품을 비롯 친절한 손님맞이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경북 북부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도내 외국자본 유치현장 확인 및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합레저타운으로 건설되는 영주의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 현장은 침체된 경북 북부권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번에 건설되는 영주시 아지동에 189,37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설되는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을 통해서 경북 북부권 관광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방문한 CoorsTek Asia社は 구미 국가산업4단지 23B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세라믹 장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에 준공을 한 유망 기술업체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통상문화위원장은 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유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지원방안 마련에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IT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해외 투자 기업의 환류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및 해외 투자 유치단 파견 등 외국의 첨단 신기술 업종 유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구미 국가4단지에 소재한 CoorsTek Asia社は 공장부지 지목변경 건 및 가설건축물 철거·축조신고 절차에 대한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발로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관련 업체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 한편 제224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결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이번 심사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상호 통상문화위원장은 도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정책을 강화하고 소속의원들의 역량과 뜻을 모아 도민이 바라는 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00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한국노총의 자립운영 실태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기업경영지원 부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결산안을 심의하였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유치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2010상주대학생 승마 선수권대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장 건립비 18억원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국제행사 승인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동의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 특정 지역의 편중보다는 균형개발차원에서 지역별로 동반 발전 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창업 및 운전자금 등과 같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 그동안 통상문화위원회에서는

경북도민의 희망과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낙후된 북부권 개발과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관광·문화 활성화를 통해 경상북도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문화 경북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통상문화위원회는 현장중심의 확인 행정을 통하여 한차원 높은 도정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산·학·연·언론·시민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일류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현장 방문 및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황상조 위원장(경산)



박기진 부위원장(성주)



고우현 위원(문경)



김기홍 위원(영덕)



김영택 위원(구미)



박영화 위원(고령)



장길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포항)



장병익 위원(군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비교시찰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의정활동 및 도정 시책에 접목시켜 나가기 위하여 타 시·도 주요시책 현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 핵심 프로젝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현장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현장, 신화역사공원조성 현장, 혁신도시 현장, 도시재정비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비교 점검하여 우리 도의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21세기형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동대구~경주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조 4,1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의 지역방문으로 동서6축 고속도로 및 동해중부선철도 건설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5월 14일 동명~부계간 확·포장공사 기공식을 가지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이어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5월 26일에 상주 「화서~화북간」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을 청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공사기간이 6년이나 계속되는 공사으로써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발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추진, 부실시공이 없는 완벽한 공사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행정 구현 등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현장위주의 건설소방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6월 10일에 경북테크노파크(경산) 국제회의실에서 도의원, 시군의원, 공무원, 의용소방대 남녀 연합 회장단, 학계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의용소방대 임용 운영권이 시지역은 도지사가,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 운영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지원체계를 도지사가 일괄 운영하는 일원화 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대규모 시가지나 공단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의용소방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용 소방대와 소방차량 등 장비를 갖추고 지역의 화재를 전담 하여 진압하는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 출동수당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인 1회 4시간으로 활동시간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당지급액도 타 시도와 형평성을 기하였으며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 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재해보상을 강화 의용소방대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의 활동실적에 비례한 경비 지원, 포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설조항 마련 등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이 일원화되면 소방행정 체제와 의용소방대 관리의 일치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풍수해·산불 등 대형 재난에 광역적 대응, 조직관리·예산 등 운영의 평준화로 대원의 불만요인을 감소시키고, 군의 재정부담의 완화 등 소방 서비스의 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제224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하였으며,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지출 및 이월액, 불용액, 이월사업의 적정성과 향후 추진 계획,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 대책, 골재채취 현장 점검, 예비비 등에 대한 적정성과 부합여부 등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승인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감액 및 증액 예산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경제성이 있는지, 이월 사업 등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한 사전 대책 등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과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당초예산에 소방본부 소관 제철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3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제철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11억원과, 안동소방서 담장 보수공사비 2천 8백만원 등 불요불급예산 11억 2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다.

한편 지난 제223회 임시회 기간중 공청회를 가졌던 경상북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 상정하여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에 있어 개혁 적일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형재난에 광역적 대응 등 소방 서비스의 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민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박영화 위원장(고령)



박병훈 부위원장(경주)



고우현 위원(문경)



권영만 위원(봉화)



김만용 위원(의성)



김수용 위원(영천)



김영만 위원(군위)



박순열 위원(청도)



박진현 위원(영덕)



손진영 위원(영주)



장두욱 위원(포항)



정경구 위원(안동)



조동만 위원(영양)



최윤희 위원(비례)



한혜련 위원(영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화)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개발, 미래 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및 결산 검사를 하였다.

● 제2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여 각각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는 영어체험 학습운영지원 등 10억 3천만원을 순 삭감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기숙형공립고 설립 등 56억원을 순 삭감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의 2007회계연도 결산안의 총 세입액은 4조 4,720억이고 세출액은 4조 1,058억으로 세입은 예산 현액 4조 3,032억원보다 1,688억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 현액 4조 3,032억원보다 1,974억원이 더 적게 집행되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3,662억원으로 이월액이 781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81억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결산안의 총 세입액은 2조 5,650억이고 세출액은 2조 3,465억으로 세입은 예산 현액 2조 5,400억원보다 250억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 현액 2조 5,400억원보다 1,935억원이 더 적게 집행

되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2,185억원으로 이월액이 958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68억원, 지방채상환 259억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5,530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 1,568억원 대비 3,962억원(9.6%) 늘어났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6,762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3,771억원 대비 2,991억원(12.6%)이 증가하였다.

●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 및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예산 집행이 합법적이고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예산 재이월, 과다한 이월사업비, 과다한 불용처리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FTA 등 시장개방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 소득안정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및 취약계층 복지 시설 지원, 고유가 안정대책,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투자 유치 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합리적인 재분배는 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



박 순 범 의원(칠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질) AI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방안과 AI 신고 이후 최종판정을 앞당겨 효과적인 방역 대책은? 민간방역조직에서 현장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피해농가 지원대책은?

답) AI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방안으로 2004년 농수산국 축산경영과 가축방역담당 신설, 가축위생시험소 인원 및 장비 확충으로 공익수의사 배치('07년 2명, '08년 9명, '09년 6명)와 AI 검사장비 구입('08년 1회 추경예산 330백만원 계상) 예정이며 군, 경찰, 소방본부 등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통제초소 합동운영 : 경찰 492명, 군인 42명 •통제초소 사용 물 공급 : 소방본부

AI 신고이후 최종 판정을 앞당겨 효과적인 방역대책 추진 최초 신고 이후 긴급방역조치로서 신고농장 이동제한 등 실시,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1차 정밀검사(바이러스 분리)까지 가능토록 건의 •전문검사인력 교육(5.21~5.23일), 필요장비 구입중

민간방역조직에서 현장방역업무 담당하는 방안 주로 국가방역으로 추진,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

•국내 민간방역조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999년 설립)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음.

•우리도 예방백신 확보 : 1,500명분(현재 980명분 사용)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135만명분인 타미플루 보유량을 250만명분 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필요시 수시 배정요청 계획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세의 100%를 보상하고 수입 재발생시까지 생계안정자금을 보조지원하고 6개월 이내 가축입식식 입식자금을 융자지원, 또한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정책 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 감면과 소비부진으로 체화된 물량은 수매 진행중

질) 타 시도에 비해 경북의 축산예산이 빈약함으로 축산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폭등하는 사료값과 폭락하는 송아지가격 손실보전 및 현실적인 대책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유통 마련에 대한 견해는?

답)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경상북도 축산행정 예산내역은

○ 경상북도 •예산총액 : 34,302억원(축산행 정예산 199억원, 0.6%)

○ 전국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8개소(경기,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제주)

•예산총액 : 290,789억원(축산행 정예산 1,395억원, 0.48%)

송아지가격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도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30개소 조성하여 •우량 암소 3만두 상시 유지(연간 번식우 수요량의 20%) •축산기술연구소를 한우개량 중심지로 운영 : 종축, 수정란, 정액 등 공급 생산기지에 공급

사료 값 절감대책으로 조사료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 - 휴경지, 청보리 등 이모작 활용 •조사료 생산규모 5천ha → 35천ha 확대

•조사료 급여 비율 45% → 60%, 자급률 82% → 95%로 향상 •곡물사료 확보를 위한 해외생산기지 확보 필리핀, 연해주 등

축산물 유통체계 효율화 직접 판매하는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 식당과 판매장이 공존하는 『축산물 먹거리촌』, 대도시 종합 판매시설 『브랜드 육 타운』 조성 등 ○ 원산지 표시로 유통의 투명화 •한우인증제 확대, 생산이력추적제의 전면 실시 등

질) 소방서 미설치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방안은? 현장활동 부족인력 해소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일반직 공무원의 소방관서 배치에 대한 견해는? 소방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해결대책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 해소방안은?

답) 소방서 미설치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방안으로 현재 소방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관서신설,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중앙정부(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인력 충원 및 소방재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지방 소방기관의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의 국비지원 방안 • 소방청사 신축, 소방차량 보강 및 교체 등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 등

부족한 소방력 보강과 전문의용소방대원 선발, 활용 방안

- 소방력 기준에 의한 소방인력 소요인원 : 6,058명 ○ 현재 소방공무원 정·현원 : 정원 2,184명, 현원 2,101명(결원 83명)
- 소방인력 충원 및 소방재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방인력 확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1인 근무 119지역대 '나 홀로 소방서' 해소를 위하여 통폐합 추진
 - 1차 통폐합 : 28개소(통폐합 25, 119안전센터 승격 3) • 2차 통폐합 : 43개소(2008. 12월말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소방관서 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인원 : 33명 정도(소방본부 3명, 소방서별 2명) ※ 소방방재청 권고안 ○ 직급 : 6급 이하(소방본부 6급 이하, 소방서 7급 이하)
-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일반행정직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 인력의 도피처로 활용은 배제
 - 소방관서장의 일반직에 대한 지휘·통제권 확보(인사, 평정, 징계 등)
 -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요구하는 소방관서의 특성에 부합 여부
 -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자 배제 : 소방관서는 비노동단체임.
 - 제복공무원과 비제복공무원간의 이질감 형성으로 인한 인화단결 저해
 - 119안전센터 등 현장활동부서 근무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우려
 - 소방관서 배치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 소홀 우려
- ※ 일반행정부서로의 복귀에만 관심 집중, 원격지 근무에 대한 불만 등

소방차량 노후화 해소대책

- 소방차량 노후율 현황 • 전체 보유 : 607대, 내구연한초과 267대(노후율 44%)
- 소방차량 교체현황 : '07년 56대 교체, '08년 상반기 36대 추진중
- 노후장비 교체대책 • 경복형 화학차 배치 ※ 경복형 화학차 : 고성능화학차와 물탱크차의 성능을 겸비한 차로서, 고성능화학차와 물탱크차 2대를 1대로 통합한 차량임.(차량구입비 및 관리비 절감) • 차량중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차량(고가 사다리차, 펌프차 등)을 우선 교체될 수 있도록 소방차량보강 계획 수립 •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을 위한 연차적 예산확보 및 소방방재청 국비지원 건의 • 주요부품 적기 교체 및 점검 • 정비방법의 개선으로 실사용내구연한 연장 노력

일선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 외근 부서 3부제 근무인력 충원 : 소요인력 842명 연차적 추진
- 3부제 근무 미시행 외근 부서에 대한 월 2회 순번휴무 보장 ○ 외근 부서의 행정사무의 감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질)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우려와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은?

답) 공모사업의 의미와 추세 공모사업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특정사업을 발굴하고 권장목적으로 정부가 특정사업의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후, 공모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선정 후 일정기간 정부예산 지원) 중앙예산확보 과다경쟁으로 최근 공모 사업 확대 경향

우리도 공모사업 응모상황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예산 확보차원에서 각종 사업 응모,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응모 : 21개 사업 선정 : 13개 사업, 미선정 : 4개 사업, 선정중 : 4개 사업 ※ 선정율 : 76%

공모사업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공모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간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지방비 부담액이 높아질수록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 지방비 부담액 증가

신기술분야에 대한 자치단체간 사업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모사업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사업목적, 경제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 참여(활용)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심 노력(정부공모사업으로 하반기 추진예정)



김영기 의원(청송) 교육환경위원회



질)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 왜곡시도와 관련, 현실적이며 자주적·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독도수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우리 도에서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난 2006년 8월 발표한 『독도수호 신구상』에 따라 『독도 지키기 종합 대책』을 수립,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먼저,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실효적 지배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대화된 160톤급 독도관리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독도 입도인원을 확대하고 독도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 관광객 안전관리와 어업지도, 독도 거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물품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대피소 운영하고, 추가로 부유식 방파제 설치 및 정주기반 조성을 구상·추진 중 그리고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독도 해역 클린존 조성과 독도 바다사자 복원을 추진하고, 생태연구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울릉도 독도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아울러, 독도의 체계적 연구·조사와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대학의 독도연구소와 상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도연구를 공동 추진, 독도캐릭터 개발, 학술대회, 전시회, 독도탐방, 홍보책자 발간 등 국내의 홍보활동 강화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독도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용복기념관 건립과 (재)안용복 바다학교를 설립하여, 여름해양캠프, 청소년 독도문화제 및 안용복 도일 경로 뗏목탐사 등 다양한 해양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

끝으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조용한 외교와는 별도로 국제관계자문대사 등을 통한 지방외교를 강화하는 등,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적극 노력

질)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경북도의 축산농가보호대책은?

답) 한우사육현황

- 전 국 - 사육호수 : 178,201호, 사육두수 : 2,033,729두
- 경상북도 - 사육호수 : 40,728호(23%), 사육두수 : 491,146두(24%)

한우산업의 유통체계 투명성 확보 방안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음식점·판매점 시설 및 장비, 인테리어, 기계장비 등 20개소, 100억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축산물 먹거리촌 조성으로 기반시설, 거리조성, 음식점 및 판매점 인테리어 및 판매시설·장비지원 등 5개소, 50억원(도비 10, 지방비 20, 자담 20)

대도시 브랜드육타운 조성으로 건물신축, 내부시설, 부대비용, 놀이시설·공원 및 브랜드 홍보관 설치 등 2개소, 240억원(국비 80, 용자 40, 자담 120)

생산자단체 직판장 설치

- 설치 목표 : ('08) 17개소 → ('17) 30개소

송아지가격 안정대책

○ 축산기술연구소를 한우육종개량 기지화

- 한우개량 및 우량축 생산기반 : 우량번식우 2,000두, 종모우 10두
- 사업비 : 471억원(국비 235, 도비 236)

○ 암소핵군농가 관리 : 암소 30,000두(600호), 92억원(국비 46, 도비 46)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위탁사육 : 30개소, 2,856억원 (국비 1,428, 지방비 1,142, 자담 286)

○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08년) 신규 65천두(관리 170천두) → ('17) 140천두 • 안정기준가격(1,550천원) 현실화
- 가격하락에 따라 보전금을 지방비로 두당 100천원 추가 지원

조사료생산체계 구축

○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 ('08) 100ha → ('17) 5,000ha • 사료작물과 쌀을 3년 주기로 윤작하는 자연 순환농업 실현

○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 ('08) 1,598ha → ('17) 20,000ha • 경종·축산농가 연계 겨울철 휴경지 등에 조사료 생산 활성화

○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사업 : ('08) 3,567ha → ('17) 10,000ha • 초지, 농경지, 유휴지 등에 사료작물 생산기반 구축

질)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을 감소 방안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취업률 제고 방안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일된 명칭사용 입장 및 국제결혼 중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

답) 다문화사회로 급속 진행 결혼이민여성 지난해 말 4,600여명(전년도 대비 62% 급증)이 증가, 10년 후 농어촌학생 25%가 다문화가정 자녀, 국방의무 담당, 언어, 문화, 자녀교육, 인권침해 등 심각한 농촌 사회문제 대두

우리 도의 다문화정책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 시행 - 전국 최초, 이주·정착·생활까지 전 단계를 걸친 결혼이민자 종합지원 대책과 우리말 공부방 운영, 찾아가는 방문 교육사업, 부부캠프 운영 등 ※ 다문화정책 전국 최우수상 수상

인적자원 개발, 경제적 안정 지원으로 결혼이민여성 영어능통자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공무원교육원 영어강사 채용,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 영농자립기반 제공 등 특히, 여성농업인과 연계 농촌 현지형 지원사업 확대

국제결혼 중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국제결혼 중매 문제는 이혼을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난해 1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음. 법이 시행되면 사기결혼 피해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중개업체 대표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철저한 지도 감독

질)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성인교육 등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답) 경상북도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지역교육진흥을 위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 지방교육세 1,848억원, 지방재정부담금 239억원(도세총액의 36/1,000)

지역중심학교 육성을 위해 시군별로 1개 교씩 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도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나갈 계획

학교교육과 별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훈련 등 사회교육을 확대 실시, 지난 해 1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과 관련한 업무가 종래의 시·도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이관. 우리 도에서는 사회교육을 지역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더욱 확대하기 위해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상정 중에 있으며, 학교지원과 주민교육업무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전담조직으로 도 본청에 인재양성팀을 설치 운영



이 준 호 의원(청도) 농수산위원회



질) 한우사육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한우사육기반 유지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체계 투명성 확보방안은? 생산비의 46%를 차지하는 송아지가격 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답) 한우사육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1,723억원 지원 중에 있으며, 이중 한우우는 3천여호에 940억원을 지급대상자로 선정, 대출 실행 중에 있음. 사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종자보급, 벧짚암모니아 처리, 조사료장비, 섬유질사료가공시설, 사료혼합기 지원 등 11종 8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한우사육기반 유지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산 쇠고기의 유통체계 투명성 확보 방안

- 경북명품 축산물유통센터 건립
 - 사업내용 : 음식점 · 판매점 시설 및 장비, 인테리어, 기계장비 등
 - 사업계획 : 20개소, 100억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축산물 먹거리촌 조성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거리조성, 음식점 및 판매점 인테리어 및 판매시설 · 장비 지원
 - 사업계획 : 5개소, 50억원(도비 10, 지방비 20, 자담 20)
- 대도시 브랜드육타운 조성
 - 사업내용 : 건물신축, 내부시설, 부대비용, 놀이시설 · 공원 및 브랜드 홍보관 설치 등
 - 사업계획 : 2개소, 240억원(국비 80, 용자 40, 자담 120)
- 생산자단체 직판장 설치
 - 설치 목표 : ('08) 17개소 → ('17) 30개소

생산비의 46%를 차지하는 송아지가격 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중장기 대책

〈송아지가격 안정대책〉

- 축산기술연구소를 한우육종개량 기지화
 - 한우개량 및 우량축 생산기반 : 우량번식우 2,000두, 종모우 10두 · 사 업 비 : 471억원(국비 235, 도비 236)
- 암소핵군농가관리 : 암소 30,000두(600호), 92억원(국비 46, 도비 46)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위탁사육 : 30개소, 2,856억원(국비 1,428, 지방비 1,142, 자담 286)
-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08년) 신규 65천두(관리 170천두) → ('17) 140천두 · 안정기준가격(1,550천원) 현실화
 - 가격하락에 따라 보전금을 지방비로 두당 100천원 추가 지원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 ('08) 100ha → ('17) 5,000ha · 사료작물과 쌀을 3년 주기로 윤작하는 자연순환농업 실현
-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 ('08) 1,598ha → ('17) 20,000ha · 경종 · 축산농가 연계 겨울철 휴경지 등에 조사료 생산 활성화
-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사업 : ('08) 3,567ha → ('17) 10,000ha · 초지, 농경지, 유휴지 등에 사료작물 생산기반 구축

질) 도내 특구지정 19개소 중 농어업분야 관련 특구 15개소의 실효성이 낮음,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농어업특구의 종합육성대책은?

답)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산업 육성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의 지역특구가 지정, 2006년 전국 최초로 지역 특구박람회 개최, 2007년 지역특구 평가에서 우리 도가 특별상을 수상함. 현재 문경 오미자특구 등 15개 시군 19개 특구가 현재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구미 지식산업특구 등 6개소는 신청을 준비 중에 있음.

현 특구제도의 미비점 특구의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향토특산물특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없어 성과 미흡, 현행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가 대부분 세부적인 사안으로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특구제도 개선방안 지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규제특례로 개편하고,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특구모델 개발 및 기 지정된 특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지역특구법 개정. 농어업 관련 특구는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유통·물류·가공분야에도 사업비를 집중투자하여 지역특구 경쟁력강화하고 차별화해 나가겠음.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지역특구법 개정, 지역특구를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지역 특구 발전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

질)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복숭아 폐업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적정 면적 유지 및 지역 명품화 대책은?

답) 복숭아 폐업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체결과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FTA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과원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자율신청에 의하여 3,041ha에 990억원의 폐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과원폐업이 많았던 것은 재배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가공용과원(247ha), 경사지과원(733ha), 영세 고령농가의 노후과원(1,303ha) 등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그 결과 복숭아 재배면적이 2003년 7,373ha에서 2007년에는 4,888ha로 감소(33%)하고 있어 경북 복숭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적정면적유지와 명품화 추진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복숭아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FTA기금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 판매수시설 설치, 지주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숭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농민사관학교와 연계한 전문 CEO를 양성하는 등 복숭아 농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복숭아 주산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산시의 옹골잔, 영전시의 별빛촌, 청도군의 청리브 등 지역브랜드를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광역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우리도 복숭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노인시설로 21세기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방안은? 대형사회복지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추진방안은?

답) 우리 도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현황

모든 모두가 건강하고 사회복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06년에 사회복지 요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여성시설 등 20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15), 장애인복지시설(33), 지역자활센터(20), 노인회관(89) 등 157개의 시설이(여성 관련 시설, 경로당 제외) 운영중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포항, 경주, 경산 등 10개 시지역에 14개소, 칠곡군에 1개 총 15개소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단기적인 추진방안

능동적 예방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주민생활, 저소득층 일자리 알선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 사회복지 전반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도 단위의 종합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면 이를 적극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련 의원(영천 통상문화위원회)



질) 도민체전 무기연기 결정이 타당하였다고 보는지? AI 감염가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연기에 따른 재정지원책은 무엇이며 시군체육회 관계자와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무기연기 결정한 이유는?

답) 도민체전 무기연기 결정 절차와 과정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4.1 전북 김제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우리 도에서는 도민체전 개최지역인 영천에서 5.1 발생하여 각계에서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려 표시(전국적 확산 추세, 5.6 경주·경산지역에서 추가 발생), 이에 따라 도자체 대책회의(5.8)를 거쳐, 5.9 도 관계관, 도체육회, 도교육청, 영천시 관계자 참석, 해당 부서별 현황설명 및 토론을 거쳐 개막 5일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도민체전 개최 연기를 최종 결정 ※ 조류인플루엔자가 안정되면 빠른 시일내 도민체전 개최 방침

AI 감염가능성의 과학적 근거

영천에서 발생한 AI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되어 인체감염이 우려됨.

- 5.10 대통령은 AI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체감염 항균 바이러스 대책 필요” 강조

질병관리본부는 5.12 국내 발생 AI는 인체감염 가능성 낮다고 발표

※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 없지만, 정부에서도 인체감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외국에서는 인체감염사례 있었음.

연기에 따른 재정지원책과 의견수렴하지 않고 무기연기 결정한 이유 연기에 따른 대회운영비 등 추가 비용은 추경에 일부 확보 지원, 긴박한 상황에서 세심하게 의견수렴 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 -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람.

※ 5.23 도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6.5~6.8까지 도민체전 개최 결정

질)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농가소득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은?

경북한우클러스터에 참여한 축산 농가들이 사육한 한우를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은?

답)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

우리도 농촌 특성상 농업소득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농가 인구에 비해 농가호수도 많으며 농촌인구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특히, 포항, 구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농가소득이 저위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임.

지난해 우리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농가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데다 사과 우박피해와 한우가격 하락에 기인함. 지난해 농외소득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자마을만들기, 농기업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초기단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업농가는 적극 육성하고 고령농의 경우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탈농 유도하는 한편, 농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경북한우 클러스터 초품한우의 안정적 출하 대책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은 2005년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고급육 생산과 “생산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축산물 위생·안정성 제고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 경쟁력 제고

“참품한우”의 계통출하 부진은 시장개척 초기 ‘참 품한우’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 미흡과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출하물량 체화로

나타난 문제, 지금은 군위 동아LPC도축장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속한우가 서울, 경기, 대구 등지에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많이 해소

내년중에 고령공판장 가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농가가 원하는 전두수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앞으로 영천지역에 축산물 유통타운 조성(10억)과 포항, 구미의 명품 축산물유통센터 건립하여 축산물한우의 유통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내실화에 대책은?

답) FTA로 경북농업의 피해가 심각

『FTA특별대책위원회』 상설기구 - 신설 FTA극복과 경북농업 육성

- 농업인재 양성, R&D개발전담기구로 운영 등 적극 대응
- FTA를 기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
-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 해외유통공사, 교포사업가 활용 등
- 전문브랜드 개발 및 공격적 수출 마케팅 전개

농수산물 수출시장 여건 환율하락, 고유가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와 수출상대국의 검역, 농식품의 안정성 강화 등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작용하고 있으며, 주수입국인 일본, 미국 등의 세계 경기전망이 불투명으로 최근 농수산물 수출여건은 어려운 상황임.

우리도 농산물 수출 동향 사과수출은 수출전문브랜드인 『테일리』를 개발하여 주력수출시장인 대만시장을 공략한 결과 지난해 대비 8배가 늘어나고, 파프리카는 신선채소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수출유망품목으로 재배면적이 7ha에서 13ha로 재배가 확대되고 수출도 크게 늘고 있으며, 팽이, 새송이 등 버섯류는 미국, 화란, 호주, 중국 등지에 공격적인 수출마케팅 전개로 230만\$ 수출되는 등 새로운 수출주력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대책 미주지역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 IA 소재 한남제인에 경북농특산물 매장 개설 운영, H마트 등 MOU체결로 수출확보 확보, 금년 11월 대만에서 사과 “테일리”의 대대적인 특판행사 계획, 농림수산식품부의 버섯수출연구 사업단 유치와 파프리카, 김치 등 수출 주력상품 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 강구

질) FTA에 대비하고,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산업 육성과 유망 식품가공 산업 지원대책은?

답)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했을 때는 부가가치와 수출촉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업인과 기업이 상생발전

우리 도에서는 시장개방의 큰 흐름과 식품·외식 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

농어업을 2·3차 융복합화하는 식품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 3월 경북 식품산업의 종합적인 마스트플랜 마련을 위해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경상북도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용역 중

3월 6일 식품개발의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유치를 포함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도에서는 2006년 9월 농산물유통과 내에 식품산업 전담부서 설치·운영

정부에서는 '99년부터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2007년부터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공업체 유치와 인프라 구축 14개소 190억원(지방비 57, 융자 57, 자부담 76) 자체 재원으로 보조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업체당 15~50억원의 운영자금과 가공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하여 지난해 가공산업 유치활동 적극 추진결과 (주)자연촌 등 6개 업체 291억원, 고용창출 395명, 지역농산물 판매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장 두 옥 의원(포항 건설소방위원회)



질) 다문화 사회의 문화·인종 갈등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대안은?
이주여성 자녀문제 심각, 2세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야기, 도의 대안은?

답) 다문화 사회의 문화·인종 갈등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선 4기 출범 이후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경제적 자립 지원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다문화 사회 도래에 대비해 오고 있음.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해 우리말 공부방, 방문교육 확대, 온라인 교육 활성화 가정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남편교육, 부부캠프 운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 원어민교사 양성과정 운영,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영농기술 지원 등 자립기반 지원, 차세대 여성농업인 후계자로 양성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도지사 서한문 발송, 친정·대모 결연사업 추진, 영·호남 문화체험 교류, 일반인과 함께하는 아시아 음식 축제 개최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화, 방문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아동양육 지원, 대학생과 미취학 아동 간의 결연을 유도하여 멘토 활동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0개 다문화연구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도우미 운영” 등 앞으로,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래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음.

질) 2006학년도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보육교사 자격증 미취득과 관련 교과목 변경하지 않는 사유와 교무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이 적법가능한 일인지?

답)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못한 이유는

2005년도에 관계 법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나 교육과정에 유사과목을 개설하면 종전과 같이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

그러나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유사한 학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강의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하여 법령상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인 것으로 인정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전원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적법성 등

교무위원회는 교무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금년 4월 16일 법령에 정한 과목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라고 심의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 강원도에 비해 민영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울릉도 외에 연안지역에도 취수해역 지정 등 심층수 개발계획은?

산·학·관 협동 연구개발 계획은?

답) 『동해안 프로젝트』 추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동해안 집중개발을 위한 「신해양 경북시대」 선포하고 해양문화, 해양관광,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 추진 특히, 동해안 부존자원 해양바이오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 개발 적극 노력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

해양심층수는 생수·음료·술 등 식품분야, 아토피 치료제 등 건강마용분야,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분야 등 천혜의 자원이요, 해양보물입니다. 지난해 8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개발여건 마련, 2005년도 (주)울릉미네랄이 국내 최초 울릉도 650m 해저 취수 음료 시판을 위해 해양바이오연구원과 동국대에서 심층수 효능연구 및 상품개발 진행중이며 한국해양 연구원의 해상형 심층수개발 시범단지 유치 추진 등 노력

향후 개발계획

『해양심층수 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생산·연구·관광중심으로 권역별 특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울릉군은 해양심층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화 중심지구로 육성
- 포항, 영덕, 경주 등 연안지역은 문화관광 및 에너지시설과 연계하여 해양테라피, 심층수체험단지 등 관광중심지구로 개발 대학 인프라 활용 산·학·관 협동 연구개발 추진
- 지난해 11월 해양전문가 100여명 『경북해양포럼』 결성, 해양바이오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등을 연계 공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포스텍 산하 전문대학원 설립 방안도 추진중

.





정 경 구 의원(안동) 기획경제위원회



질) 정부운하에 대한 지역여론 통합을 거쳐 낙동강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부운하 건설을 경북에서 먼저 실시할 의향은?

답) 영남의 젖줄 낙동강

벚길을 통한 교통·무역의 주요 운송통로로서 근래까지 지역개발의 중심축이며 오늘날 단순히 용수공급, 홍수처리 등 일반적인 강으로 전락 → 낙동강을 신성장축으로 개발하기 위해 낙동강프로젝트, 정부운하 건설 추진

낙동강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부운하 건설을 경북지역 우선 추진

정부운하는 낙동강의 체질을 개선하고 낙후된 우리 경북지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추진중인 낙동강프로젝트와 함께 운하건설이 착공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되며 새로운 경제·문화권이 형성될 것임.

최근 물길을 잇는 것은 미루고 낙동강운하부터 건설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5일 구미에서 개최된 「낙동강 운하포럼」에서 정부운하 중 낙동강 구간 조기추진을 주장했음.

또한, 지난 23일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낙동강운하 조기 추진을 건의한 바 있음.

정부운하는 물류를 넘어 치수·이수, 환경보완, 관광의 기능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낙동강프로젝트를 포함한 낙동강운하 조기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할 계획임.

질)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타 지역보다 많은데 따른(전국 3위) 교통사고 종합대책과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은?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2007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교통사고는 총 16,423건이 발생, 사망 755명, 부상 25,567명으로 이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27.8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 ※ '06년 교통사고 : 발생건수 17,003건(사망 769, 부상 26,822건)

2006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3.4%, 사망자 1.8% 각각 감소되었음.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은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홍보 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지역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분석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높은 것은 고속도로 및 국도 연장률이 높고, 대도시 도로보다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가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도내 2,653km 전국 17,326km 대비 15.3% 차지), 또한 험준한 산악지형의 도로가 많고 65세이상 노령인구 증가추세이며 교통사고 주요 발생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 65%, 중앙선침범 9%, 신호위반 7%로 등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2008년 교통사고 종합대책 및 교통안전 선진화 추진

① 예산사업 분야 : 총 1,058억원(국비 148, 지방비 929, 기타 28)

- 교통신호기, 위험도로구조 개선, 보행자 교통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 10,130건 15억원
- 대중매체 홍보, 교통안전교육, 불법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 29,304건 1,023억, 구조·구급능력 향상 : 1,134건 832백만원
- 구급차, 구조인력 확보, 119구조장비 보강 등, 운수업체 관리 및 종사자 교육 : 25,000명 54백만원

② 비 예산사업 분야

교통안전 홍보 및 행사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교통안전의 달 행사(9월), 교통사고 사진전시회, 행락철 교통안전 활동 강화 등 추진.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분기 1회) •도, 시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운수사업조합 등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운수종사자 관리 및 교육(경상북도교통연수원), 교통안전 운전자 및 사회교육 : 연 12,000명(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학교안전교육 실시(교육청)로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등하교길 현장지도(경찰관서 협조) 등

③ 『교통사고발생 10%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협조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경차사용 비율 증대방안 도 본청과 사업소 차량 보유대수 : 총 89대

• 승용차 59대(대형 4, 중형 12, 소형 5, 다목적 지프차 38) • 승합차 30대(대형 6, 중형 8, 소형 16).

지역적 특성과 업무수행 우리 도는 지역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으며,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농수산물 시험, 재난안전 점검 등 업무 특성상 1,000cc 미만의 경차차량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곤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 방안 도 본청에서 정부에서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전기와 휘발유 겸용인 하이브리드 차량(1대)을 금년 하반기에 구입하여 시험운행, 성과분석 후 보급 확대 검토

※ 하이브리드 차량 : 환경친화적 저공해, 배기량 1,399cc, 가격 25백만원 정도 이과 병행하여 직원들의 현지 확인을 위한 1인 출장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운전원의 경제속도 준수교육 등으로 유류비 절감 도모

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 및 종합적인 대책은? 자전거도로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내표시판과 방향 표시판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철도, 버스정류장 등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은?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의 자전거 활용대책의 추진과 향후계획은?

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 및 종합적인 대책

추진상황

- 총계획연장 1,868km 중 561km 개설 890억원 투자 - 08년 계획 : 8개 시군 13,7km 45억원
- 자전거보관소 1,043개소, 수용대수 32천대, 횡단보도 턱낮추기 4,898개소, 표지판설치 1,093개소, 자전거보유 479천대
- 대형마트와 자전거 활성화 시민협약 체결, 범시민 자전거타기행사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추진
- '08년도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신설 - 2회 130명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단위 아파트 개발, 택지조성 등 시행시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설치 권장, 자전거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선진사례 적극 발굴 시책 반영, 자전거이용 우수기관 행정지원 방안 모색 및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국비 지원 건의

자전거도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내·방향표시판을 체계적으로설치하는 방안과 철도, 버스정류장 등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방안은?

장애물 제거와 안내표시판 등 체계적 설치방안으로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차차 지속적으로 단속, 안내 및 방향표시판 조사후 일제정비. 대중교통수단 연계방안으로 충분한 인프라 확보 및 이용률을 제고한 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관계법령 제정 등 많은 사업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검토

낙동강 프로젝트의 자전거 활용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추진상황 - 5개 시군, 15.7km, 34억원('08 시범사업), 향후 계획 - 성과분석 후 예산확보 등 적극 노력

질)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 및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민원대책, 대구광역시 등과 협의하여 광역화 또는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견은?

답) 도내 하수슬러지 발생현황과 처리실태

'07년말 기준, 1일 41.9톤 발생, 처리실태는 해양투기 316톤(75%), 재활용(89톤), 매립 소각 14톤(4%) 차지

하수슬러지 확충 계획은 2011년까지 11개소에 사업비 54,980백만원 투자, 총처리용량이 673톤/일로 재활용, 소각 등 육상처리 시설 100% 확충, 또한 직매입이 가능하나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 등이 우려되어 현재 설치중인 3개소(25톤/일)와 신규시설 확충 및 인근 대형 처리시설과 통합처리 등으로 2011년까지 육상처리 가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신규부지 확보, 슬러지의 차량이송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통합처리를 위한 이송에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보완 등으로 악취발생 근원적 차단 노력, 또한 슬러지 처리 생산품(부숙토, 퇴비)을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 추진

대구광역시와 광역처리 및 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은 현재 대구시에서 설치중인 500톤/일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대구시 6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420톤/일과 향후 현풍하수처리장, 성서폐수처리장 슬러지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여유용량이 없는 실정 앞으로 도내 인근 시·군간 통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보조금 지원비율 향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 현재 운영 중인 3개소 중 2개소(김천, 구미)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설되는 처리시설도 민간위탁을 검토해 나가겠음.



송 필 각 의원(칠곡) 교육환경위원회



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일부만 시행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답) 우리 도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현황

국가보훈대상자는 51,952명이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이군경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등 총 14개의 보훈·참전 단체가 있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참전 단체 지원현황

도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참전 단체에 전직지 순례, 추모행사 등에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 보훈 선양사업으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 6.25참전유공자 전공비 건립 등 7건에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2007년도에 도 전체 개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한 실적은 지원예산은 280억원이며, 지원인원은 365천명 이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217개(도 8, 시군 209)임.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사용료, 주차료 감면 등은 도 및 23개 시군에서 개별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

우리 도는 극난 극복의 최후의 보루이자 호국의 주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인근 대구권역의 대형유통업체 매출액 중 75%가 유출되고 있는데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은?

답) 먼저 우리 도내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 현황은

도내 대형유통업체의 수는 현재 22개소로 매출액은 '08년 3월 현재로 1,032억원으로 전년 동월 973억원에 대비, 59억원(6.1%)이 증가하였음.

연도별로는 '05년 8,919억원(8.9% 증가), '06년 1조 711억원(20.1% 증가), '07년 1조 2,074억원(12.7% 증가)으로 급성장(1개소당 평균 549억원으로 추정)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인근 대구시의 경우 '07년 2조 7,843억원으로 우리 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 도내 대형유통업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황은

'07년도의 대형유통업체의 총매출액 중 직원임금, 영업비용, 지방세 등 30~40%를 공제하면 60~70% 정도(7,224~8,452억원)의 자금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대형유통업 본사 : 서울 등 수도권)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은 '96년 시장개방에 따라 진출한 대기업의 대형유통업체(마트)가 자본과 기술로 무장, 지역 상관시장에 입성, 일반시장 잠식

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구매력이 있는 상품과 편리한 여건 등이 일반시장보다 매력적이라 판단되는 등 소비문화와 행태 변화에 기인

이에 따른 우리 도의 장기적 대책은

지역유통업 상생발전계획을 수립('08. 2월) 추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08. 6월)하여 대형유통업의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영세상인, 농민 등 생산자와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내 유통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세부적 추진계획은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의 업체라는 자긍심 부여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역 현지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또한 지역 발전의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지역 생산품 입점 및 판매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민 고용 확대 및 처우 향상, 농수축산물 등 현지 생산자 지원(영농기술, 판로 등) 지역 내 각종 체육, 문화행사 등에 적극 참여 및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질) 대중교통불편에 대한 체계적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은?

도로환경이 좋지 않는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은?

답) 대중교통서비스의 현실태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는 2,400여개 노선버스 중상으로 도민 전체 약 11.5%가 이용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은 노령화 추세,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유가, 자가용 증가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여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또한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많은 도시지역에 많은 투자와 지원하고 있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대책

재정지원, 시설개선, 운영관리, 서비스관리의 4개 부문으로 중점 추진

- 재정지원 - 농어촌 오지지역이 많은 특성상 벽지노선의 재정지원 확대
- 시설개설 - 노후차량교체, 차량고급화, 버스승강장 쉼터, 노선안내 표지판 개선 등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 제고
- 운영관리 - 대중교통카드 보급, 환승할인제, 단일요금제 추진으로 요금부담 경감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과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 서비스 - 관련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종합평가 강화 등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방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환경사업 지속 추진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선형개량, 교차로 구조개선, 중앙분리대설치 사업 등 확대 추진
- 폭이 좁은 기존 차로도 연차적으로 도로 폭을 넓혀 나가겠음.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중교통 문제개선과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의장단 Chair Group

대구·경북 공동발전토론회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이상천 의장(포항시4, 한나라)은 4월 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기관단체장 및 관람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시 개장식」에 참석하여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치른 세계문화엑스포를 바탕으로 문화의 시대를 앞당기자고 강조하였으며,

4월 11일 구미 금오공고 체육관에서 선수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여 지식과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부와 권력을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지식과 기술을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들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4월 26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소방가족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소방가족들을 격려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소방수요와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4월 30일 구미시 사곡동 소재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단체 및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새마을운동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 열세번째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위대한 운동으로 21세기 선진경북 주체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5월 14일 군위군 부계면 제2석굴암 주차장에서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군위 부계~칠곡 동명간 도로건설공사 가공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지역균형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었던 팔공산이 직선으로 연결돼 팔공산지역 관광벨트화 및 낙후된 경북내륙지방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5월 21일 도청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및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등 대구경북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대구경북 공동발전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도의 주요정책인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낙동강·백두대간 신성장축 개발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6월 5일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선수 및 시민, 관람객 등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체전을 통해 300만 도민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맛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였으며, 6월 1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가진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에너지분야의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4월 11일 청도읍 고수리 둔치에서 개최된 크린경북 만들기 실천대회에 참석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형성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으며, 4월 30일 봉화군 명호면 이나리 강변에서 가진 낙동강탐사대 발대식에 참석하여 낙동강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를 재발굴하여 경북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자고 강조하였으며, 5월 23일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가진 경상북도 수산경영인대회에 참석하여 21세기 수산업에 대한 수산경영인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6월 5일 도청강당에서 경북도청이전 예정지(안동-풍천, 예천-호명) 선정에 따른 특별답화문을 도지사와 공동 발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화재 보존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 당부

방대선 부의장(성주군1, 한나라)은 5월 16일 성주 민속문화의 보고인 한개마을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고 소방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관계자 및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개마을의 도지정민속자료 등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소방관계자 및 지역민들의 문화재 보존의식 고취」는 물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5월 26일 성주 군민의 날 기념 및 제11회 군민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성주군민대상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지역민들의 화합과 지역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애향심으로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어울림 정책포럼」에 참석, 다문화시대의 역할 강조

안순덕 부의장(의성군2, 한나라)은 5월 8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경로효친사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세대간 이해 증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3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5월 23일 인터불고호텔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지역공동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장이 될 「어울림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그리고 6월 16일 의성군 봉양면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미늘, 양파 등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의 적기 수확 출하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실시한 농촌일손 돕기 행사에 참가하여 마늘수확은 물론 농가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였다.



의회 홈페이지 안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연중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council.gb.go.kr>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도민의 소리



세계화하는 전통도자기축제가 되도록...



고우현 의원(문경시2, 한나라)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된 2008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에 참가하여 외국에서 온 도공인과 유대강화와 앞으로 발전방향, 상호협력 등 문경도자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의 전통 도자기 주요 생산지임을 알리고, 문경시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로 세계화하는 전통도자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상인 및 지역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제고 주문



권영만 의원(봉화군2, 한나라)은 6월 9일 봉화 춘양시장에서 봉화군수 및 각급 기관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춘양시장 비가림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여 비가림시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중의 하나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상인 및 지역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주문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충일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 참석, 헌화



권인찬 의원(안동시1, 무소속)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충혼탑에서 6.25참전용사와 재향 군인회 회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헌화했다.

또한 6월 8일 길인면 단오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6월 18일에는 안동 우체국 고객대표자 회의에 고객대표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영덕군교육발전 토론회」에 참석, 교육발전이 영덕발전임을 강조



김기홍 의원(영덕군1, 한나라)은 5월 23일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여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수산업경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6월 10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영덕군 21세기 명품교육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영덕군 교육발전 토론회」에 참석하여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교육발전이 곧 영덕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여성결혼이주민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계기



김만용 의원(의성군1, 한나라)은 4월 21일 의성중학교 인조·천연단지 안전운동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 활성화와 방과 후 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게 됐다”며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4월 28일 의성군민회관에서 개최된 결혼이주민여성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결혼이주민여성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도정이전추진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촉구

김수용 의원(영천시2, 한나라)은 5월 29일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정 연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자치 법규 입안 및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의정 활동의 전문성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김수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방식과 인구비례를 감안하지 않고 시군별로 동일하게 30명씩 도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묻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도청추진위원회에 촉구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문화공간인 쉼터 등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

김숙향 의원(비례대표, 민주노동당)은 4월 19일 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각계기관 내빈 및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산 이주노동자센터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후원의 밤 행사로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문화공간인 쉼터 등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며 이주 노동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애쓰는 진보청년연합회의 노고 격려

김영기 의원(청송군1, 한나라)은 5월 5일 청송 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청송 범군민 건강걷기대회 및 어린이대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는 국가의 초석으로 밝고 진솔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지역과 국가에 큰 일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6월 8일 진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진보 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애쓰는 진보청년연합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과 더불어 연합회의 지속적 발전을 기원했다.



농어업FTA대책 『권역별 순회간담회』 참석,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주문

김영만 의원(군위군1, 한나라)은 4월 29일 군위군청 사거리에서 개최된 『클린 군위, 테마 꽃길 조성사업』 행사에 참석하여 “이번 꽃길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아름다운 군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월 8일 대구경북농업융합음료 가공장에서 개최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권역별 순회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경북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직결될 것을 주문했다.



2007년도 결산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예산이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사

김영택 의원(구미시3, 한나라)은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계획에서부터 완료 단계까지 재장상비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운용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제도개선점을 발굴하여 2009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지역의 그늘진 곳에 더 밝은 빛이 되도록 적은 힘이나마 일조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김천시2, 한나라)은 4월 30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시각장애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평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공로로 (사)시각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앞으로도 지역의 그늘진 곳에 더 밝은 빛이 되도록 적은 힘이나마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8일 김천 중앙공원에서 열린 “효 한마당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김종천 의원(영주시1, 한나라)은 5월 5일 경북전문대학에서 열린 제86회 어린이날 기념식과 제31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 참석하여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자 초석이라며 밝고 씩씩하고 건강한 어린이로 잘 자라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격려했다. 또한 5월 30일 영주시 서천둔지에서 열린 「2008영주 소백산 철쭉제」에 참석하여 소백산 철쭉제가 전통축제로 발전하고 영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로잔치에 참석, 노인분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위로

나규택 의원(고령군2, 한나라)은 5월 1일부터 10일간 중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노인회 정기총회와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노인분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위로하였다. 또한 5월 17일 우곡 그린수박축제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그린수박이 전국적 명성을 얻기까지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6월 2일 개진감자직판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과 창의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시식회』 참석,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남종식 의원(청송군2, 한나라)은 4월 26일 청송군 주왕산에서 개최된 『제23회 주왕산수달레 축제』에서 참석하여 “주왕산은 가족단위 등반에 가장 좋은 명산임에 착안, 수달레축제가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월 13일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음식점을 위한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시식회』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

박기진 건설소방부위원장(성주군2, 한나라)은 5월 12일 성주군 전통사찰 선석사에서 개최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퍼져서 가난과 질병, 반목과 질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5월 30일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민방위교육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화재, 풍수해, 지진, 가스폭발 등 재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낙동강 대탐사』에 참석, 낙동강의 가치 재발견과 지역발전 기여

박노욱 의원(봉화군1, 한나라)은 4월 30일 경상북도와 경북대 낙동강연구원이 함께하는 『낙동강 대탐사』에 참석하여 이번 낙동강 대탐사는 “낙동강의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연계 시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31일 『청량산 하늘다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가장 긴 것으로 평가되는 하늘다리는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청량산의 진면목을 엿 볼 수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자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에 참석,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도모

박병훈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경주시2, 한나라)은 4월 14일 경주소방사에서 주관한 양동민속 마을 문화재보호『안전마을 만들기』 시범행사에 참석하여 “양동민속마을이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6월 1일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산업의욕을 고취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 하고 싶다.”고 말했다.



『벌꿀축제 개막식』 참석,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길

박순범 의화운영부위원장(칠곡군2, 한나라)은 5월 5일 칠곡군 신동제 축제장에서 관람객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참석하여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5월 21일 왜관공단 운동장에서 의용소방대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칠곡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은 생업과 함께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단체보다 귀한 단체”라고 밝히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친환경 농업과 첨단 생명과학을 접합, 농업의 미래를 밝혀줄 것을 당부

박순열 교육환경위원장(청도군1, 한나라)은 5월 19일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된 “2008 난치병 학생 돕기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난치병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6월 4일 김천농공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08 경상북도 산업교육페스티벌 애그로-바이오 캠프”에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업과 첨단 생명과학을 접합시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

박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령군1, 한나라)은 4월 11일 고령군 축제광장에서 개최된 “제4회 고령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지역민들과 자축을 하는 한편 고령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5월 17일 고령군 우곡그린수박 한마음 큰잔치에 참석하여 관계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사 말을 통해 우곡그린수박 지역 명품화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물가자미 축제』 참석,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안 강구

박진현 기획경제부위원장(영덕군2, 한나라)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2008 영덕 물가자미 축제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관광객 맞이 축제 홍보에 동참하였다. 특히 국내외 20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와 60억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룬 이번 축제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역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또한 5월 20일 영해면 영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재래시장 마케팅투어에 나선 대구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함께 홍보활동 및 판매촉진 활동을 펼쳤다.



『해양생태관 기공식』 참석, 볼거리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당부

방유봉 농수산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5월 15일 울진 『해양생태관 기공식』에 참석하여 울진해양생태관은 기존의 민물고기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볼거리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6월 9일 국립수산물과학원 바다목장사업단에서 추진한 『해군 숙영정 인공어초 투하 행사』에 참석하여 인공어초사업은 정착성어류 등 어자원 증식과 전국 최고의 수중생태체험장으로 연계해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세미나』 참석, 혁신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

백영학 의원김천시1, 한나라)은 5월 2일 김천시 개령면 광천지구 배수펌프장 기공식에 참석하여 여름철 풍수해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만큼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였다.

또한 5월 28일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 관계인들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혁신도시 세미나에 참석하여 혁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였다.



장애우에게 가장 필요한 강당 설립방안 모색

백천봉 의원구미시1, 한나라)은 6월 15일 구미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한마음수련대회에 참석하여 평소 도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6월 13일 구미해당학교 강당설립 기금마련 바자회에 참석하여 지적장애우와 청각장애우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강당 설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선진포항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방식에 관해 토론

손덕임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5월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해군포항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고충을 경청했다.

또한 5월 14일 “여성의 정치참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18대 총선 평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포항여성인들의 정치의식 변화와 현실참여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이어 5월 21일에는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시민네트워크” 포항지역 본부 발대식에 참석하여 선진포항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방식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영주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 참석, 토론

손진영 행정보건의복지부위원장(영주시2, 한나라)은 5월 14일 영주선비촌 강학당에서 영주 문화원장 및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비촌 선비문화체험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선비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민속생활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앞으로 관광객 유치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5월 16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영주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영주 발전에 대한 토론을 가졌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발전을 모색

송필각 의원(칠곡군1, 한나라)은 5월 17일 칠곡군 가산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칠곡군 가산면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교류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교류협약을 축하하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농산물장터 운영 및 직거래를 통한 신선한 농산물 제공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한 학생교류 등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참석,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되길

윤영식 의원(예천군2, 한나라)은 4월 5일 예천 공설테니스장에서 기관단체장 및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경상북도 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 참석하여 선수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2일 예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 지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1C 새마을의식 함양과정 도민연수회에 참석하여 새마을지도자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메너센터코리아 박수희 대표의 “리더의 행복만들기” 강의를 2시간 동안 청취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조화롭게 사랑으로 배우자고 주문

윤창욱 의원(구미시2, 한나라)은 4월 3일 사곡역 쉼터광장에서 적십자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적십자사 구호급식행사에 참석하여 구미시내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급식은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프로그램 개발의 첫발을 두었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또한 5월 24일 구미역에서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기념 「제1회 걷기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조화롭게 사랑으로 배우자고 주문하며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키우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적응해 나가길 당부했다.



향후 웰빙 시대에 부합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이상용 의원(영양2, 한나라)은 5월 8일 영양군에서 주관한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위로 격려하고 관내 노인복지 향상방안에 대해 군 관계자들과 토의하였다.

또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제4회 웰빙 영양 일일산 산나물 축제 및 제2회 지훈예술제 행사에 참석하여 15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와 100여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둔 이번 행사가 향후 웰빙 시대에 부합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영양군이 상호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도 살림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

이상태 의원(울릉군1, 한나라)은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2007 회계연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 도 살림 전반에 관한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특히 세입징수활동의 미흡, 명시이월 사업비 관리, 예산액 불용처리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향후 집행부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월정교 기공식』 참석, 세계적인 역사문화재로 복원 당부

이상호 통상문화위원장(경주시1, 한나라)은 4월 28일 신라 왕궁인 월성을 연결하는 통로였던 경주 월정교 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여 “월정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돌다리 위에 기와지붕이 있는 누교로서 세계적인 역사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 10일 인터볼고 호텔에서 개최된 『월드그린에너지포럼(WGEF) 2008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에너지분야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안전과 사고대비 의식을 높여 사회 안정 도모 주문

이시하 의원(문경시1, 한나라, 윤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29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봉사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난안전네트워크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안전과 사고대비 의식을 높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5월 15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봉독교 준공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교량이 없어 농사를 짓기 위해 먼길을 우회하는 등 주민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교량준공으로 불편에서 벗어나 기쁘다고 밝히며,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을 방문, 시장애용 당부

이용석 의원(구미시4, 한나라)은 4월 24일 구미 공단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6회 LG기 주부 배구대회 및 구미시민 Festival』에 참석하여 “본 대회는 구미시민의 결속과, 구미와 LG의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5월 19일 구미역 광장에서 개최된 『A조기근절 및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발대식』에 참석하여 A조기근절과 안전성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6월 13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미 중앙시장을 방문한 경상북도 장보기 투어단을 맞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 판매금액이 좀 증가했으나, 과거에 비하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쉽다.”며 지역민들이 우리 시장을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노총 관계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 당부

이우경 행정안전복지위원장(경산시1, 한나라)은 5월 3일 경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근로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한총련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한노총 관계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5월 30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새마을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마을수련 대회에 참석하여 전임 새마을 지회장으로서 새마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 정신의 확산과 경산 새마을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화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 당부

이재철 의원(상주시2, 한나라)은 4월 26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경상북도 축구 연합회 장기 대회」에 참석하여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하였다.

또한 5월 1일 김천예술화관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8회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 모두에게 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사간 화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민체전 자원봉사 발대식』 참석, 상주인의 자부심을 갖고 임해 달라

이종원 농수산부위원장(상주시1, 한나라)은 4월 24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제45회 경북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하여 “경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상주인의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5월 22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삼백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참석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과 창의적인 육성은 우리 기성세대의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청도복숭아시험장과 연계한 기술적 지원방법을 강구

이준호 의원(청도군2, 한나라)은 4월 11일 청도천 고수부지에서 개최된 『다시 찾고 싶은 클린 경북만들기』행사에 참석하여 “생활쓰레기줄이기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6월 18일 조생종 청도 복숭아가 첫 출하된 청도농협 복숭아공판장을 방문하여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짧아 경쟁력이 있으며, 친환경 및 기능성복숭아 재배와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도복숭아 시험장과 연계한 기술적 지원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예천군1, 한나라)은 4월 30일 도와 민·관·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낙동강 탐사대 발대식에 참석하여 이날 행사는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적 현장조사 성격을 띤 것으로 낙동강 700리 전 구간에 대한 물길 탐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낙동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0일에는 오는 10월 20여개국 1천여명의 에너지분야 세계석학 등이 참석할 예정인 월드그린에너지포럼(WGEF)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학계 전문가, 경제인 60여명과 함께 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제3회 형산강 사랑 시민걷기대회」 참석, 형산강에 대한 의미 되새김

장경식 의원(포항시3, 한나라)은 5월 15일 이병석 국회의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포항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300억원 장학기금 조성 및 농촌, 포항사랑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준비에 고생한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5월 27일 영남일보가 주최한 「제3회 형산강 사랑 시민걷기대회」에 참석하여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자 6.25전쟁 최후의 보류였던 형산강에 대한 의미를 포항시민과 함께 되새겨 보았다.





마을 경로시설 노후와 운영비 부족을 도정에 적극 반영

장길화 의원(비례대표, 한나라)은 5월 8일 경주 감포읍 오류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리고, 무병장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주최한 동경주 J.C.I 회장단과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마을 경로 시설 노후와 운영비 부족에 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포항단오절 민속축제』 참석,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사 강조

장두욱 의원(포항시2, 한나라)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일 포항시 제9회 감실골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각 동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마음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6월 7일 제13회 포항단오절 민속축제에 참석하여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지키고 발전 시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정의 달 경로위안잔치』 참석, 어르신들의 만수무강 기원

장병익 의원(군위군2, 한나라)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군위군 의흥면, 산성면, 우보면, 부계면, 고로면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면 청년회에서 주최한 가정의 달 경로위안잔치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인 “기쁨의 집” 개소식 참석, 어르신 위로

장세현 의원(포항시1, 한나라)은 5월 8일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렸다.

또한 6월 18일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인 “기쁨의 집” 개소식에 참석하여 “최근 들어 노인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돼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 의료치료 및 정서적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축하하고 입소하신 어르신을 위로했다.



동해바다를 이용해 세계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전찬길 교육환경부위원장(울진군1, 한나라)은 5월 30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에서 개최된 “제13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동해바다를 이용한 해양관광자원과 생물자원 개발,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 등 바다의 무한한 해양자원을 슬기롭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세계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참전용사 유족 및 국가보훈 유공자들 위로·위문

정경구 의원(안동시2, 한나라)은 6월 8일 안동시 길안면 새마을공원에서 개최된 제18회 풍년민속단오제에 참석하여 전통유교문화의 지속적인 계승발전은 물론 단오제를 우리나라 대표 전통민속축제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에 앞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충혼탑)에 참석하여 참전용사 유족 및 국가보훈 유공자들을 위로·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관계 당국에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울릉도 산나물 축제』 참석, 울릉도만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

정무웅 의원(울릉군2, 한나라)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면 나리분지 관광지구에서 주민 및 관광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울릉도 산나물축제」에 참석하여 육지와 다른 울릉도만의 특산물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행사는 산나물채취, 더덕캐기 체험, 산나물요리 경연대회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걷기대회에 많이 참석한 주민들의 성원에 감사

조동만 의원(영양군1, 한나라)은 4월 13일 영양군청에서 개최된 『2008 군민화합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걷기대회를 계기로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화합과 유대를 도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6월 18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영양라이온스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봉사과 사회정화의 영역을 넓혀준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채옥주 의원(비례대표, 한나라)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목포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창립 62주년 기념 전국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사회교육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5월 26일 서울시 송파구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개최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출산율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여성 CEO 만들기 행사』 참석, 전문적 여성권익향상 강조

최윤희 통상문화부위원장(비례대표, 한나라, BPW한국연맹회장)은 4월 19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여성 문화CEO 만들기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문직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14 BPW세계대회 개최지 선정 실사를 위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둘러보고 후 19일 (사)제주컨벤션뷰로와 서울 롯데호텔에서 BPW한국연맹과 2014 BPW세계대회 제주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개소식』 참석,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연구센터 되길

한혜련 의원(영천시1, 한나라)은 5월 6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기로연 행사에 참석하여 원로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과 전통예법을 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5월 29일 정신지체학교인 경북 영광학교에서 국내 최초인 특수학교 내에 「동물매개치료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동물매개치료사 양성을 통해 정신지체 장애우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센터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황상조 건설소방위원장(경산시2, 한나라)은 6월 10일 경북테크노파크(경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역의회소방대원들의 지역봉사 활동을 격려하고 전국에서 충남과 경북만 이원화 되어 있는 임용권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 차원의 최적안을 도출해, 제22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영남일보 2008. 4. 18



전국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은 17일 2008년도 제2차 임시회를 전남도의회에서 갖고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 제검토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도의회 “정부 원안대로 추진 국민 앞에 천명하라”

비수도권 광역시·도의회 의장단도
“공기업 이전에 조처 안함” 원안대로

를 꼼꼼히 따지고, 지자체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정치권은 새 정부가 기업인 마인드로만 혁신도시 건설이 재검토되며 “혁신도시 건설이 재검토되며”

경북매일신문 2008. 4. 23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경남 자연학습원을 찾아 현지견학 소감을 발표하고있다.

주민찾아 지역현안 직접 청취

경북도민일보 2008. 4. 24

“경북도내 시 유입 막아라”

도, 유입방지 비상체제로 전환
오늘 2차 대책회의...에달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 경북도는 24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도내 양계협회, 수의사회, 농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차단방역에 나서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북일보 2008. 4. 29



경북도의회는 28일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농가를 돕기 위해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다.

경북도의회, “닭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공무원 등 150여명 시식회 참석

경북도의회는 28일 제 222회 임시회 폐회 직후 구내식당에서 이상천 의장을 비롯 55명 전 도의원과 김관용 도지사, 조병인 도교육감,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농가를 돕기 위해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다.

이상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닭고기,

오리고기는 익혀서 먹으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데도 심리적인 영향으로 닭고기의 소비가 줄어들어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앞장서기 위해 삼계탕 점심을 준비했다”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및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생존의 위기감 마저 들고 있어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격랑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의회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현준) 소속 의원 9명 회 임시회(18~28일까지 21~23일까지 서울, 도를 찾아 경제자유구장과 우수전통시장을 하기 위해 현지로 떠났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송도 및 청라 지구 개발현장과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22일에는 현대식쇼핑센터로 탈바꿈한 서울 중곡동 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23일에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을 찾아 시설 및 경영현황을 파악했다.

대구신문 2008. 5. 15

“도내 사설학원 자정까지 연장운행”

도의회 교육위, 시설기준 완화 등 개정안 의견수렴

경북도내 사설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연장되고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는 14일 안동교육청 회의실에서 학부모 및 학원 및 교습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제220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유보한 경북도교육청의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에 상정된 도교육청의 관련조례 개정안은 학교교과 과습학원 및 교습소의 과습시간 제한,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원의 단위 시설 및 과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 및 제한 등이다.

도 교육청이 제안한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하게 제한한 밤 10시까지의 과습시간을 초·중등학교는 밤 11시, 고등학교는 밤 12시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14일 안동교육청 회의실에서 학원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 등을 초청한 간담회를 가졌다.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지하 시설에 대한 학원설립 허가에 대해 의원들이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거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학원 설립기준 완화와 관련, 음악학원의 경우 시지역 90㎡에서 70㎡, 군지역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설립조건 완화에 이견이 없었다.

특히,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 의무화에 따라 학원의 신체상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가입 의무화도 을 1인당 의료보험비를 3천원한다는 개정안에 잠정 동의했다.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는 5월20일 개최하는 제2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 교육청의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조례안 개정을 확정키로 했다.

김삼민기자 ksm@idaegu.co.kr



아사아일보 2008. 4. 30

경북도의회 “시 파고 헤쳐나가자”

농수산위원회, 방역현장 고령IC 방문 격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에서는 지난 28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하고 지난 18일부터 개최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

병인 경상북도교육감 등 집행부 간 부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도내 육계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점심으로 삼계탕을 들면서 육계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날 이상천 도의회 의장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및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생존의 위기감마저 든다며, 이럴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격랑의 파고를 헤쳐 나가자”고 말하고, “오늘 점심을 삼계탕으로 준비한 것은 닭고기, 오리고기는 일

앞장서 육계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다
경북일보 2008. 5. 21

도의회 日 독도영토 왜곡표기 규탄 결의

청와대·국회 등 관계 부처 대응책 촉구...일본 정부에 결의문 전달키로

경북도의회는 20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채택했다.

55명의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독도는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학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번 일본 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방침은 영토 주권 침해 행위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최근 모처럼 조성된 한일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독도 침략 아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당당히 나서라고 주장했다.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규탄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의해 대응책을 촉구한 것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경유해 일본 정부에 전달. 독도의 일본 고유영토 표기 계획을 사전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천 의장은 “우리의 주권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형태의 독도 영유권 왜곡에 대해 단호히 맞서 격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북기자 ynsb@yongbuk.co.kr

경북매일신문 2008. 5. 21

“도청 권역별 공청회 분열 불씨될라”

김수용 도의원, 평가기준·여론조사 방식 문제 제기



정도 같은 생활권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천이 고령, 성주, 철곡 같은 생활권역으로

분방식과 별개다. 그러나 5개 항목의 나열방식은 관행성 4개, 성장성 3개, 접근성 2개, 친환경성 1개를 앞부분에 놓고 그에 상응한 항목을 뒤쪽에 놓는 방식의 조사항은 지나치게 관행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사항이라고 했다.

때문에 공청하게 끌고온 5개 항목을 묻는 방식으로 태연이 만이 진정한 도민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독청을 높였다.

또 인구비례가 아닌 지역별 동 일하게 30명씩 묻는 여론조사 방식도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미리 했다면 그 여론조사는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기준이 현실성 없다
경북도민일보 2008. 5. 23

영남일보 2008. 4. 29

시·도의원 “공부하는 의원상 만들겠다”

세미나·연구단체 결성 잇따라

대구시 및 경북도 의원들이 의정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구 도심 재창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모임인 수초회(회장 이경호)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역 현안에 대

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수초회는 또 대구시 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시 용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2이전과 대구경제 활성화와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도정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8개를 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식경제자유구

역 연구모임, 임업발전 연구모임, 도의회 성인지(性認知) 정책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연구회, FTA대책 농업발전연구회가 경북도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

경북도의회 측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방의로 제정했다”며 “연구단체의 결성으로 도의회의 자치입법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범기자 jcho@yongnam.com

일간대구경북 2008. 5. 22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 토론회

21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道通상문화위, 영주 판타시온 방문

리조트 조성현황 확인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22일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현황과 부석사 유물관 건립현황을 방문했다.

이상호(경주시) 통상문화위원장과 영주 출신 김종현 도의원 등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위원 5명은 제223회 도의회 임시회(20-29일)기간 중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현지 확인 차 영주를 방문, 경북도의 역점사업인 2007년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현장과 화엄종찰 부석사의 유물관 건립현황을 둘러보았다.

이날 방문에는 도 투자유치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도 다수 참석,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대도시와의 접근성 등 열약한 투자유치 여건 속에서 영주시민과 영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일구어 낸 결과물에 경이로움을 표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판타시온 리조트와 같은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서 관련 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영주/김주희기자 kje@hiddom.com



대구신문 2008. 5. 24

3개 도립의료원 경영개선 '시동'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 31명
운영개정안 가결...원장공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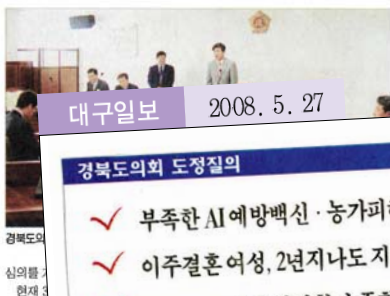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경북도 산하 안동, 포항, 김천 등 3개 지방의료원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원장 공모 등 운영방안이 개선된다.

이들 3개 도립 지방의료원장은 그동안 공모할 수도 없어 도지사가 관할직으로 제임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안동, 포항, 김천 등 3개 지방의료원장 임기 만료후 원장 임명시는 공모를 거쳐 임명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원장에 대한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운영진단 결과를 철저히 반영토록 규정했다.

특히 외과·병원 운영능력이 떨어진 의료원 문제가 발생 경우 임명규정을 명시, 원장



대구일보 2008. 5. 27

경북도의회 도정질의

- ✓ 부족한 시예방백신·농가피해 보상등 대책있나
- ✓ 이주결혼여성, 2년지나도 지원 받을 수 없는가
- 5개업 특구육성계획과 종합복지관 설립 계획은



박은범 김경기 이준호

경북일보 2008. 5. 28

경북도의회 "도민체전 연기 성급했다"

제 223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는 28일 제 3차 본회의를 열어 4명의 의원이 나서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친다.

다음은 주요 도정질문.

□한해련(통상문화위원회 영천) 의원-도민체전 연기 옳았나

제 46회 경북도민체전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영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막을 불과 4일 앞두고 민의수령이 나 아무런 후속대책도 없이 갑자기 연기되고 말았다.

표면적인 이유로 경북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효과적인 방역 때문이라고 했으나 시가



한해련 의원



장두욱 의원



정규구 의원



송필국 의원

상대적으로 경북도의 경우 민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다.

□정규구(기획경제위원회 안동) 의원-경부운하 경북이 우선추진해야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부운하의 건설이 가시화 될 수 있다면 낙동강프로젝트와 더불어 기존의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프로젝트를 포함한 경부운하의 건설에 대해 적어도 경북에서만이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영남일보 2008. 5. 28

경북도의회 눈길 끄는 목소리

"농수산물 수출길 개척 '빈수레'" "중앙 공모사업, 재정난 되레 가중"

경북도의회가 오랜만에 참신한 목소리를 냈다.

한해련 의원(영천)은 농수산물품 해외시작개척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품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이 커지고 있으나,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해련 의원

주문했다. 한 의원은 28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도정질문할 예정이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27일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경북매일신문 2008. 5. 30

경북도의회 '학원 조례안' 진통 끝 통과 교육연대 무효소송 준비... 갈등불시 여전

경북교육연대가 사활을 걸고 막으려 한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북도의회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김숙향(민중노동당 비례대표) 경북도원의원의 5분발언에 이어 재회부 요청과 일부 경북도원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안건 처리했다.

이날 경북도의회 입에서 3일간 철야농성한 경북교육연대 소속 회원들 35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는데 조례안이 처리되자 안타까워 했다.

상임위원 통과했던 조례 개정안은 기존 밤 10시까지 제한되던 도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초·중·고생 상하의 학원일 경우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하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천 경북도의장 질의토론 선포

행정보건의위원회 김숙향 경북도원은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회부를 요청했다. 재회부 요청 이유는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와 건담회가 분재라고 했다.

2차례 걸친 건담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를 참석시키지 않아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경북교육청이 주관한 건담회는 한미드로 전성위주의 단계를 이뤄졌다고 의욕을 제기했다.

이상천 경북도의장은 도의원들과 동의를 얻어 재회부요청에 다른 합의토론을 선포했다.

▲김숙향, 전찬길, 채옥주, 나규택 경북도의원 공방전

김숙향 도의원은 재발언에서 건담회 자리가 경북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면 반대 의견을 내놓는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북도의회 수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반대할 도의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교육환경위원회 채옥주(비례대표) 도의원은 김숙향 경북도원의원이 이 문제를 꺼낸,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그는 교육환경위원회의 조례안 결정에 대해 무시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건담회에서 여러

도의회 4차 본회의 폐회

경북도의회는 29일 2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교육연대 등의 반대 속에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한 만큼 상임위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고 거듭했다. 반면 전찬길(울진) 의원은 "무한경쟁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채옥주(한나라·비례)의원도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회의 특성을 감안,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의정연구위 설치 등 11건 상정안 가결

등 총 11건의 상정 안건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숙향(민중노동당·비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안건의결에 앞서 상임위 재회부 동의안을 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위원회가 조례개정에 앞서 도민 여론수렴을 위한 2차례의 건담회를 가졌으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교직원, 학부모, 사회단체는 초청하지 않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임위 재회부 다시 심도있게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규택(교원) 의원은 "사안이 중요

충분히 다른 안건을 재회부하는 것은 안된다"고 맞섰다.

결국 재적의원 54명 중 총석의원 46명이 이 안건의 상임위 재회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7표, 기권 8표로 재회부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따라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까스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 중 주목받는 또 하나는 김수용(영천)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정으로 이어진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이 마련됨으로써 조민간 의회내 의정활동 자문기구로 의정연구위원회가 설치된다.

의원위는 의원과 외부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돼 도정 주요 현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연구를 진행되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도의회가 진정한 입법정책의 회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이밖에도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항규약안 △경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나방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김상안기자 ksm@idaegu.co.kr



영남일보 2008. 6. 17

도청이전지 평가 불만 무기한 단식농성 경북도의회 시끌시끌

진상조사특위 구성 추진도
'조례' 통과 어려움 겪을 듯

경북도의회가 도청 이전 문제로 소란스럽다. 달막 지역 경북도의회가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가 이번 경북도의회가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무의 이종원 도의원은 "도청 이전 추진위가 조세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16일부터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을 잘 지킨 시민이 바보 취급당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단식농성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북한 분단 상황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반대선 부의장(상주)은 "도청 이전 후보지를 주요화하는 것도 아니므로 진상을 조사하는데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도청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통과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조세환기자 jcho@yeongnam.com



경북일보 2008. 6. 20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지 결정 진상조사 특위 구성

감점사항 미적용 등 의혹 집중 조사키로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청이전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무조사 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심도조사결과 선정 발표 직후 조세위원회의를 구성, 도청이전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민일보 2008. 6. 20

도의회 의정연구회 설치 '진통'

행안부 '조세 상당부분 법령위반' 재의요구

경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세의 상당부분이 법령을 위반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재의요구가 들어왔다.

로 나타났다.

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단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자문기구 또는 각종 전문가를 위원의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위촉 또는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제56조에 각각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재소 등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경북도청 및 교육행정 전반기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권한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제안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정부터가 잘못에 있다고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권한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제안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정부터가 잘못에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경북도청 및 교육행정 전반기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권한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제안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정부터가 잘못에 있다고 지적됐다.

서울신문 2008. 6. 23

경북도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예년-인들을 아전지로서 확실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특위 조사가 나섰고,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달막 지역 주민들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준비하는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청 이전 차질 불가피

대구신문 2008. 6. 21

선정과정 조사



경북도의회 제2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행정4동에 상주지역 노인들이 도청이전지결정 진상조사특위 구성안 차를 관망하고 있다. 조세환기자 desk@idaegu.co.kr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30일 추경 예산안 최종 처리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날 안동 보광선거에서 당선된 권인찬(무소속-48) 의원은 의원선사와 함께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재직했다. 도의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각 실·국·본부 해당 상임위원회를 2007년 결산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호)를

열고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넘겨받아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30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처리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경북도가 법규저속 등으로 재의를 요구한 경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 재의요구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환기자 kam@idaegu.co.kr

대구일보 2008. 6. 24

"하수관거 확충사업 감독권한 있나"

도의회 224회 정례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집중추궁

224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 결산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30일)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7천만 원의 증액이 됐는데 협의체의 인적구성 현황과 주요사업은 무엇인가"고 도 집행부에 물었다.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교육환경위는 이날 환경예상안 입국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결산조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김만용 도의원(의성)은 "상하수도 사업 예산 중 하수관거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한 도의 감독권한은 무엇인가"고 질의했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만큼 타 시도의 경우처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육주 도의원(비례)은 태풍 나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하수관거 들어서는 태풍이 예상되는데 태풍 피해복구예산을 이월한 사위에 대해서도 따졌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박영호)=

이날 도 농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농수산위는 소속 위원들은 최근의 국제 곡물가 상승 및 유가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등에 따른 도 집행부의 대응 방안 등에 집중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건설소방위 예비심사에서는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의 복구 상황과 이 과정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집중 심사가 벌어졌다.

김기홍 도의원(영덕)은 "지난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 중 현재까지 공사중인 지역과 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졌고, 고우현 도의원(문경)은 "재해관련 예산으로 소화전정비사업 20억1천여만 원과 상주배수정장 설치사업 15억 원 등을 계상했는데 재해재난을 대비해 적은 계상액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승욱기자 kw@idaegu.com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대구일보 2008. 6. 25

“자제 발의건수 높여…본연의 임무에 충실 도청이전 둘러싼 대립양상은 후반기 속제”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전반기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 기간이었습니다. 이후 경북도의회 전반기가 이끌었던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조례안 등에 대해 권역별 또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였다. 도민의 목소리에 바탕해 한 차원 높은 입법 활동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전반기 도의회는 그동안 도의 숙원이었던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해 최종 결정에 이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도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각종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에 힘을 쏟고 있어 높이 평가하는 평가다.



경북일보 2008. 6. 27

도의회 전반기 ‘도민 복리증진 최우선’ 평가 도청 이전 조례안 제정 등 현안 396건 시정·개선…40여건 민원 해결

경북도의회는 제1회 전반기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도수에 충실하면서 지역과 지방의 발전을 위한 경북도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랑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5개의 경제특구와 12개의 임시회를 열어 조례·규칙안 130건, 예산결산안 20건, 결의안 12건, 건의안 42건, 동결안 13건, 송언 11건, 기타 안 25건 등 도민안과 직접 관련된 21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청 주요시설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정책



권한유지해 질문을 받았으며, 도내 각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80개 시·군·구에 걸쳐 실시했다.

이밖에 27명의 의원이 50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안 등에 대한 대의원 현안에서 수행한 주민주권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안특정위원회 1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는 등 활발한 현안주도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상천 의장은 “합심 결의의 마음으로 대의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들을 적극 수용과 적극적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경북도청에 대한 견제와 정책추진에 대한을 제하고 주고 받아가고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널리 알렸다.

대구신문 2008. 6. 27

6·25 참전 유공자 수당지급 예산편성 지연 무책임 질타

도의회 예결특위 박병호 부의의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박병호 의원이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위한 예산을 미흡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박병호 부의의장은 지난 25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7년도 예산결산, 2008년 추경심사에서 “지난해 5월 임시회에서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에대한 예산을 편

“있다”고 지적했다.

원장은 “참전명예가 수당이 올

다. 박병호 의원은 “경북도 6.25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미흡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민일보 2008. 6. 30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도의회 예결위, 道 예산 4조5천 530억 확정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2008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 결과 26일 새벽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경북도가 제출한 추경예산 3천962억원의 증액분에 대해 방비정장유치지역지원(양성자가속기지원 등) 등 모두 23건에서 32억 9천2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업조

사료생산장비지원 등 14건 22억 6천만원에 증액했으며 순삭감액 10억 3천200만원에 예비비로 증액했다.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2천991억원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기숙형공립고교설립비 52억원과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운영지원 4억원 등 2건 56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대구일보 2008. 7. 1

황상조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추가 의혹도 조사하겠다”



도청이전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논란 끝에 30일 꾸러졌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특별위가 앞으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30일 2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청 이전 후 보지 평가결과와 진상조사특별위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선임 안건을 통과하면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하지 않은 11개 시·군 출신의 도의원으로 진상조사특별위를 구성했다.

이날 선임된 진상조사특별위 위원 ▲황상조(경산, 위원장·사천) ▲이상천(의성, 부위원장·고구려(문경) ▲권영만(영주) ▲김기홍(영양) ▲김영기(영주) ▲박순철(영주) ▲이성태(영주) ▲전현철(영주) 등이다.

황상조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은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 공공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

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 외에도 특이 차원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범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

▲황상조(경산, 위원장·사천)

▲이상천(의성, 부위원장·고구려(문경))

▲김기홍(영양) ▲김영기(영주)

▲박순철(영주) ▲이성태(영주)

▲전현철(영주) 등이다.

황상조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은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조사

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

“공공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

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 외에도 특이 차원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범위한 차원

에서 조사를 벌여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

▲황상조(경산, 위원장·사천)

▲이상천(의성, 부위원장·고구려(문경))

▲김기홍(영양) ▲김영기(영주)

▲박순철(영주) ▲이성태(영주)

▲전현철(영주) 등이다.

들어갈 것으로 본다.

▲ 일부 위원들이 특이 참여에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다.

▲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처음에는 참여에 심적 부담감을 가진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다. 특이에서는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밝혀나갈 것이다. 중대한

사유 여부는 특이에서 언급할 게

가 아니라고 본다.

▲ 특이 활동이 30일로 제한된

있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연

장할 수 있다는 것이 탈락지역의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다. 신속한

특이 활동에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았다.

▲ 실적 조제안에는 특이 활동

기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연장 가능 횟수는

연급에 있지 않다. 하지만 특이

차원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처

리를 생각하다.

▲ 특이 활동 과정에서 탈락지역

이나 유치지역이 도의원들의 입

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 비(非)위원들이 특이 회의

에 참가할 수 있지만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자료는 제출

할 수 있다. 특이에 어떠한 외압

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를 할 것이다.

이승복기자 law@idaegu.com

매일신문 2008. 6. 27

경북교육청 작년예산 1천억 死藏

도의회 결산심의 결과

경북도교육청이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으로 지난해에만 1천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 결과 지난해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교육청의 예산 2조5천억원 가운데 4%대인 950억원을 아껴치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지난 2005년 예산을 편성했던 구미 송정제일초등학교 신설 사업비 65억7천700만원은 2006년 이후 휴교 불용처리하 데 이

박병호 도의원(경주)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재정, 투자, 용자 심사 등 철저한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며 “불용처리 예산이 1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기체를 발행, 타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운용 전반에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철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준했다.

이에 대해 예병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송정 제일초등학교 신설사업비의 경우 주민들의 신축요청은 있었으나 학생수의 감소와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이유로, 안동 2006년 이후 휴교 불용처리하 데 이

영남일보 2008. 6. 28

공청·토론회 40여 차례 “도민 결으로”

■ 경북도의회 전반기 평가

독도서 정례회·도청이전 조례 성가
도청 비판 소홀…전문성 부족 지적도

“도민의 소리를 듣는데 주안점

을 뒀다”

회 이상천 의장은 “전

회의 가장 큰 성과

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 숙원인 ‘도청 이전’

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새로운

물꼬를 트기도 했다.

아울러 있다. 경북도의회가

나름대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이었지만, “2% 부족하다”는 게 공

통된 지적이다. 일부에선 경북도

의회가, 대의원 중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제1회 전반기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도수에 충실하면서 지역과 지방의 발전을 위한 경북도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랑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5개의 경제특구와 12개의 임시회를 열어 조례·규칙안 130건, 예산결산안 20건, 결의안 12건, 건의안 42건, 동결안 13건, 송언 11건, 기타 안 25건 등 도민안과 직접 관련된 21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청 주요시설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정책

권한유지해 질문을 받았으며, 도내 각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80개 시·군·구에 걸쳐 실시했다.

이밖에 27명의 의원이 50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안 등에 대한 대의원 현안에서 수행한 주민주권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안특정위원회 1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는 등 활발한 현안주도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상천 의장은 “합심 결의의 마음으로 대의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들을 적극 수용과 적극적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경북도청에 대한 견제와 정책추진에 대한을 제하고 주고 받아가고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널리 알렸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박병호 부의의장은 지난 25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7년도 예산결산, 2008년 추경심사에서 “지난해 5월 임시회에서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에대한 예산을 편

“있다”고 지적했다.

원장은 “참전명예가 수당이 올

다. 박병호 의원은 “경북도 6.25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미흡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신문 2008. 6. 27

황상조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추가 의혹도 조사하겠다”

도청이전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논란 끝에 30일 꾸러졌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특별위가 앞으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30일 2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청 이전 후 보지 평가결과와 진상조사특별위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선임 안건을 통과하면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하지 않은 11개 시·군 출신의 도의원으로 진상조사특별위를 구성했다.

이날 선임된 진상조사특별위 위원 ▲황상조(경산, 위원장·사천) ▲이상천(의성, 부위원장·고구려(문경)) ▲김기홍(영양) ▲김영기(영주) ▲박순철(영주) ▲이성태(영주) ▲전현철(영주) 등이다.

황상조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은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

“공공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

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 외에도 특이 차원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범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

▲황상조(경산, 위원장·사천)

▲이상천(의성, 부위원장·고구려(문경))

▲김기홍(영양) ▲김영기(영주)

▲박순철(영주) ▲이성태(영주)

▲전현철(영주) 등이다.

황상조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은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조사

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

“공공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

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 외에도 특이 차원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범위한 차원

에서 조사를 벌여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

▲황상조(경산, 위원장·사천)

▲이상천(의성, 부위원장·고구려(문경))

▲김기홍(영양) ▲김영기(영주)

▲박순철(영주) ▲이성태(영주)

▲전현철(영주) 등이다.

이승복기자 law@idaegu.com



대구신문 2008. 7. 5

“도민의 기대와 희망 적극 반영”

후반기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



최근 실시된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예상대로 정면접이 한 이상천 의장의 재선으로 끝났다.

“조직 개편통해 입법정책 기능 높일 것”

구하고 사전 조사를 끝낸 후 출마를 선언한 ‘여유’를 이날 입증한 것이다.

이날 의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을 감수하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민일보 2008. 7. 9



제8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출범식

경북도의회는 8일 본회의장 로비에서 이상천 경북도의회장을 비롯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자치회 조영만 교육감, 윤재욱 경북경찰청장, 이광우 경북도교육위원장, 이희원 대구시장, 박희태 대구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의회 후반기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일보 2008. 7. 9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대구시의회는 8일 오전 본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김경수 시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첫 임시회 개최했다.



경북도의회는 8일 오후 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8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경북도의회 후반기 진용 완성

7개 상임위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원구성 완료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지난 8일 의정활동 돌입을 위해 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8대 후반기 도의회의 진용을 완성했다. 도의회는 8일 오전 11시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방유봉(울진·의회운영) ▲이상태(울릉·기획경제) ▲이시하(문경·행정

을 비롯한 김광용 도지사와 조병인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도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상천 의장은 출범식에서 “후반기 도의회는 지금까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힘쓰고, 도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체회의로 두가 언어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결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살아 숨 쉬는 생활정치로 펼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lew@idaegu.com



방유봉 의원, 이상태 의원, 이시하 의원, 박천봉 의원, 김경만 의원, 한혜련 의원, 김기홍 의원

경북일보 2008. 7. 9

경북도의회 첫 여성 위원장 탄생

한혜련 위원장 당선...7개 상임위 구성 마무리

경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 상임위원장이 탄생했다.

영천 출신의 한혜련(57) 의원은 8일 실시된 제8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32표를 얻어 18표에 그친 백영학 의원을 따돌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명의 여성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했으나, 이날 한 의원의 당선으로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한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이 21세기의 양상을 맞아 여성위원장이 되고 인식해 나



한혜련 위원장

화위원의 브랜드화 등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문화·관광경전 건설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 선거에서는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방유봉(울진),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상태(울릉),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에 이시하(문경), 교육환경위원회에 백천봉(구미), 농수산위원회에 김경만(군위), 건설소방위원회에 김기홍(영덕)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준(경주),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포항),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권영만(봉화), 교육환경위원회 김만용(의성), 농수산위원회 박노숙(봉화), 건설소방위원회 김영택(구미), 통상문화위원회 이재철(상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8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승욱기자 lew@idaegu.com



방유봉 운영위원장,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이시하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 김경만 농수산위원장,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김기홍 건설소방위원장

제8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院구성 마무리

경북도의회는 8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방유봉(울진),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상태(울릉),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에 이시하(문경), 교육환경위원회에 백천봉(구미), 농수산위원회에 김경만(군위), 건설소방위원회에 김기홍(영덕)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출제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음으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상천 의장(포항)은 이날 본회의장 로비에서 김광용 경북도지사, 조병인 교육감, 윤재욱 경북경찰청장, 이광우 경북도교육위원장, 이희원 대구시장, 박희태 대구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도청 이전 선정과정 진상조사 특위는 출범식에 이어 현판식을 갖고 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 특위 황상조 위원장은

대구신문 2008. 7. 10

도청이전지 결정 ‘불공정성’ 본격 조사

특위사무실 현판식

경북도의회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지난 8일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도청이전후보지 평가의 불공정성, 특정지역을 위한 답합어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경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도청이전예정지 평가 선정발표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절차가 의결됐다.

이에따라 특위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지결정 진상조사특위가 지난 8일 특위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의회소속을 다짐했다.

이날 황상조 특위위원장은 조사계획 및 조사일정 협의를 위한 건립회 자리에서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 및 각종 사안의 진상

을 철저히 조사, 300만 도민에게 헌정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상민기자 ksm@idaegu.co.kr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96번지로 울릉도에서 동남쪽 87.4km 거리에 있으며 맑은 날에는 울릉도 산위에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 약 5천만년 전 화산분출로 형성되었으며 면적은 187,554㎡, 동·서도 2개의 주섬과 89개의 돌섬 및 암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는 163종 내외의 자연자원(식물, 조류 및 곤충류)과 137종의 수산자원(어류, 해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탐내는 독도!!

그 바다의 정체를 밝힌다.

지하자원 하이드레이트의 가치

독도 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파 학원 소속 무기화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지질학적 가치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벉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한다.

항금어장으로서의 가치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나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